

# 공공경제

2023 WINTER Vol.16

기획특집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

혁신도시 박람회 충북 혁신도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스마트 혁신도시를 지향하다



# 『공공경제』와 함께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 정책과 사례, 이슈를 바탕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경제』가 기관과 정부, 국민 간의 공감과 혁신,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40주년에 즈음한 성찰

공자는 40세가 되어서 미혹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1983년 도입 이후 지난 40여년간 평가대상, 평가지표체계, 평가방식과 활용 등에서 확대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현재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성과관리 제도로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평가제도도 불혹(不惑)의 나이가 된 것 같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했고, 각종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유사한 평가지표의 통폐합, 주요 사업 계량지표의 개선,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96건이 올라와 있다. 일부 법률 개정안들은 정부의 정책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정부 부처들은 각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의 변화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서 평가지표나 평가 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은 공공성이나 효율성도 있겠지만,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Luc Bernier 교수의 지적과 같이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책무성 평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맞춤형 성과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혁신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제도로 발전하려면, 지금과 같이 너무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을 하나의 평가제도에 다 넣어서 평가하는 방식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정치적인 외풍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40년간 계속될 수 있었던 비결을 꼽아 보려면, 기획재정부가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경영평가를 위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관리와 같은 공동 지표의 경우에는 경영학,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나 공인회계사들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마다 각기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일부 사업에만 전문성이 있는 교수 등 전문가가 평가 이외에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경영컨설팅까지 하는 방식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단계적으로 평가위원의 전공을 고려해서 평가유형별 평가위원 수를 좀 더 늘릴 필요도 있는 것 같고, 평가위원 위촉 전후에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이해와 평가방식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성과급 배분을 위해 평가등급을 내는 단순한 평정 과정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evaluation)임을 우리 모두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한다. 현재 다양한 경제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성과를 경영평가라는 제도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매년 경영평가를 잘 받으면 앞으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은 담보될 수 있는 것일까?

공자는 50세에 천명(天命)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10년 후 경영평가 도입 50년이 되는 시기에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는 평가지표체계, 평가단 운영,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까지 전면적인 개편을 생각해 볼 시기인 듯하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CONTENTS

## 공공경제

2023 WINTER Vol.16



### 표지 이야기

충북 음성 가섭산(해발고도 약 700m)에 있는 가섭사는 고려 공민왕 때 창건한 사찰로, 음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음성군청)

발행인	김재진 KIPF 원장
편집인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편집위원	변민정 KIPF 정책사업팀장 장정순 KIPF 연구출판팀장
제작지원	유승현, 강석훈, 남지현, 소병욱, 이부연
외주지원	임영현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등록일	2020년 5월 13일(세종,바00032)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우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전화	(044) 414-2431
이메일	soe@kipf.re.kr
주소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구독료	권당 3,000원 (1년 정기구독 10,000원)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1005-103-961530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공공경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특집



### 08 정책리포트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개편사항  
하승완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 12 전문가VIEW I

이용자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공공행정 기관의 역할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15 전문가VIEW II

공공부문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방안  
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8 Round Table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과제

이번 「공공경제」  
Vol. 16은 어떠셨나요?

「공공경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서 담당자 이메일(soe@kipf.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시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독자분께는 보내주시신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TALK



- 26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 28 Trend Focus  
지능형 로봇산업의 글로벌 동향 및 전망  
박상수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장
- 32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202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동향: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영향  
강석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37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글로벌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보 안전관리 지원  
방선녀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정보부장
- 42 혁신이야기 I\_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의 가치 있는 변신!  
한국형 해양폐기물 재활용 플랫폼 구축
- 44 혁신이야기 II\_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 48 CEO인터뷰 I  
산업단지 대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54 CEO인터뷰 II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 치의학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용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원장
- 60 혁신도시 박람회  
충북 혁신도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스마트 혁신도시를 지향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66 잡(JOB)담 I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황가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재경영실 과장
- 70 잡(JOB)담 II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김국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인사총무팀장
- 74 나의 취업성공기 I  
출발선상이 다르다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신동현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사원
- 77 나의 취업성공기 II  
0.005% 확률의 특별한 사람  
유선영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 가입지원부 주임



# 기획특집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를 주제로, 정부와 전문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정책리포트’에서는 지난 10월 새롭게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사항을 소개한다. 이어 ‘전문가VIEW’에서는 이용자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공공행정 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고, 공공부문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본다. 마지막으로 ‘Round Table’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기관의 의견을 들어본다.

## 정책리포트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개편사항

## 전문가VIEW I

이용자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공공행정 기관의 역할

## 전문가VIEW II

공공부문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방안

## Round Table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과제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개편사항



하승완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 들어가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했다. 그 결과 2023년 6월 발표한 2022년도 경영평가 성적표에서는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하는 등 재무성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다.

2023년 10월 새롭게 발표한 2023년도 수정 경영평가편람에서는 지표별 배점 구조와 같은 큰 틀은 유지하되, 기관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를 도입하고, 과도한 점수 경쟁을 방지하여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 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표를 수정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평가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공기관은 어떤 변화와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기관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편으로 자율성 제고

먼저 기존 지표는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되다 보니, 기관 특성을 반영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어 평가의 타당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지표를 도입했다.

### (1) 준정부기관의 '효율성관리' 지표(4점) 배점 조정

기존에는 준정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노동생산성과 사업수행 효율성을 각각 평가하되, 지표별 배점을 하향식(top-down)으로 분배했다.

그러나 자체 노력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기관은 노동생산성 지표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건의가 제기됨에 따라 두 지표 간 배점을 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조정하되, 자체수입 비중 또는 기관 노력에 따른 향후 수입 확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지표 배점을 확대 또는 축소했다.

### (2)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3점)를 현행 매출액 대비 평가에서 매출액과 평균 인원 대비로 변경

연례적으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등 일반관리비성 경비의 절감 노력을 평가하는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의 경우, 매출액 대비 평가로 인해 정부의 사업 중단 등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매출액 감소 시 지표 값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평가 왜곡 요인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매출액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평균 인원을 산식에 포함하여 지표 값의 변동성을 완화하도록 개선했다.

그림 1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  
완화 개선



### (3)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 포함 대상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서 실제 지출액으로 변경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순이익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노사 협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복지금)을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편람에 따라 사복지금 출연 전액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할 경우, 우수한 경영성과를 시현

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기관은 오히려 사복기금 출연금 및 일반관리비가 함께 증가해 일반 관리비 지표 득점률이 불리해지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관계 법령과 노사 협의에 근거하여 사내 적립하는 출연금보다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일반관리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해 기관들의 관리비 절감 노력에 대한 평가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 과도한 점수 경쟁에 따른 비효율 방지 및 평가부담 완화

그간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은 서비스 질 제고와 무관한 과도한 점수 경쟁으로 인한 평가 부담과 피로 누적을 호소해 왔다. 이번 편람은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 (1)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에 절대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과도한 실적 경쟁 및 평가 부담을 완화

현재 계량지표 평가방식은 실적치의 절대 수준이 높더라도 매년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높은 득점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예를 들어 흑자 기관은 전년 대비 흑자 폭이 감소한 경우 개선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적자 기관보다 득점률이 낮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적자 기관은 적자 폭 감소 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 흑자 전환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다. 기존의 점수산정 방식은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하고, 80점을 개선도 평가에 따라 부여해 실적치의 절대 수준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개선도와 실적치의 절대 수준이 각각 50:50으로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했다. 다만, 공기업의 수익 평가와 관련이 큰 경영관리 재무지표 2개(영업이익률, EBITDA 대 매출액)에 시범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그림 2  
개선도 평가방식  
절대평가 요소 반영

SPECIAL  
REPORT



####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평가 시 활용토록 하여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 해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개 기금관리형 기관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에도 계속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IFRS를 도입한 기관과 달리 경영평가를 위해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적정성에 대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기관 편의를 위해 5개 기금관리형 기관 또한 IFRS 도입 기관과 같이 현재 적용 중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평가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 정부의 정책 수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정과제 등 수행에 적극 동참 유도

기관의 경영실적은 기관 자체 노력에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 정책 수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에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생한 불이익한 실적 요소는 평가 시 제외하는 등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됐고, 공공기관이 정책 수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1)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당겨 집행 투자액을 기관부채에서 차감

20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의 당겨 집행을 적극 유도해 2조원 수준의 추가 재정 집행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참여하기로 한 총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2조원 규모의 당겨 집행 투자액을 부채에서 제외하여 정부 정책 이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 (2)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보수체계 고도화 노력에 인센티브 부여

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 그리고 성과급 비중 확대 및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액 차등 폭 강화 등을 위한 노력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맺으며

정부는 이번 수정 편람을 토대로 2024년 상반기에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편람 수정의 취지에 따라 평가 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의 수용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경영평가가 기관을 관리하는 수단이 아닌,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용자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공공행정 기관의 역할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사회복지 영역과 공적 책무의 확장

중앙정부 세출예산을 16개 분야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2.2%로 가장 크다(2023년 기준, 열린재정(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지방재정 세출예산의 사회복지 비중(일반회계)도 32.7%를 차지한다(2023년 기준, 지방재정365(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 사회복지선진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하게 확대되는 영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은 1990년대 이후에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2020년대에는 서구 복지국가의 제도적 외형을 충분히 갖추었다 할 수 있으며, 양적 지출은 서구 복지국가의 팽창기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거대 영역의 사회복지 사업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행정 기관의 과업 범위와 업무의 다양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 급여의 양적 급증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과 개개인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 대응이라는 책무를 지닌 공공행정의 과제도 크게 확장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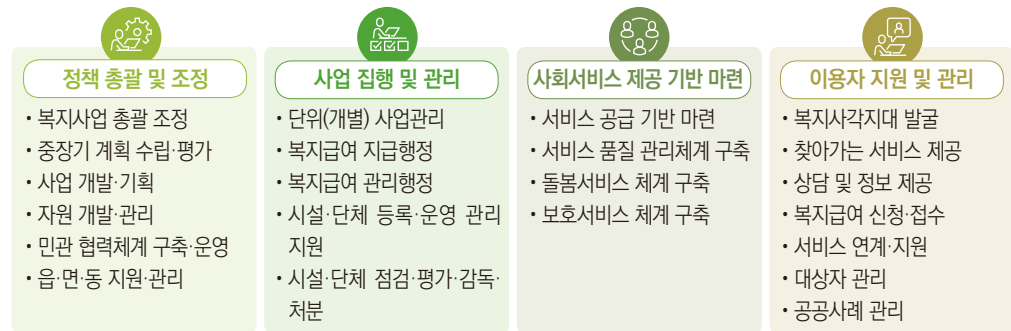
그간 사회복지 행정, 전달체계 정책은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조 제도와 소득보장 관리에 집중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도가 발전하면서, 인적 서비스(대면) 중심의 공공행정 환경, 공적 인력의 역량, 공공-민간의 협력체계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차원의 사회적 서비스 이용체계는 개개인 욕구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력, 전문성과 지속성의 확보와 함께 지역 단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과 민간의 직접 서비스 기관이 협력해 공공성(공적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불가결하다.

## 공공 복지행정의 주요 기능과 변화 경향: 이용자 맞춤 대면 서비스 확대

사회복지 행정의 기본 운영은 시·군·구가 중심이 되며, 일선 창구인 읍·면·동과 그 기능을 분담, 연계한다. 지자체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4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단위 복지사업의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이다. 지역의 복지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자체 사업을 개발하여 중앙정부 복지제도의 보충적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체 복지를 확충한다. 지역자원의 개발·관

**그림 1**  
지자체 복지행정의  
주요 기능



자료: 김희성 외(2022)<sup>1)</sup>, pp. 317~318 <표 6-2-1>을 기초로 일부 수정 작성함

리,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읍·면·동의 지원·관리 등 해당 시·군·구 복지사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국가 사회보장제도, 즉 정부 부처가 국고보조를 통해 위임한 각종 복지사업을 ‘집행·관리’한다. 이는 개인 대상자에 현금·현물급여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복지서비스 기관을 위탁-지원-관리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셋째,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기능이다. 국고보조를 통한 서비스사업의 단순 집행을 넘어서 지역 복지수요를 고려한 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기능으로, 돌봄서비스, 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넷째, ‘이용자 지원 및 관리’ 기능이다. 정형화하기 어려운 행정서비스로, 담당 인력의 전문역량과 업무 여건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어 재량적 성격이 강하다. 이는 ‘상담 및 접수·조사(욕구 파악)·서비스(연계) 제공·모니터링·사후 관리’ 등 이용자를 대면하는 업무로 이용자의 체감도와 직결된 과정이다. 다양한 문제 상황, 사각지대 발굴,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대응 등 주민과 밀착된 현장에서 긴급하고 위기도 높은 상황에 대응하되 이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상시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과업의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복지행정의 과제: 서비스 인력 투자

지자체 복지행정은 사회서비스제도 확대와 함께 2012년 공공 사례관리(현재 통합사례관리)를 복지행정 업무로 도입했고, 2019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으로 지자체가 견인하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체계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지자체 업무는 중앙정부 사업 지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아 급여를 지급, 관리하는 행정이 주류였다면, 공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발굴, 주민의 신청에 따라 대응할 욕구와 문제의 전반을 파악해

1) 김희성·강혜규·김유휘·김이배·이승모·최지선·황정운·이주민(2022),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응은, 더욱더 지역 특성, 개인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전통적 돌봄 수요와 함께 중장년 1인 가구, 학교 밖 청소년, 고립 은둔 청년, 고독사, 학대·폭력, 정신건강 등 전통적 복지체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의 욕구·필요도에서 출발한 접근을 요구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다차원의 욕구와 문제 대응력,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통합적 접근이 요청되고, 유용한 방법으로서 사례관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이와 같은 공공행정 과업의 변화는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마주하는 사회적 서비스 담당 인력들이 충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공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만 3,629명, 사회복지 전문직인 사회복지직렬은 2만 9,572명으로 확인된다(2021년 정원 기준). 그런데, 전체 일반직 공무원 대비 비율은 사회복지 담당 14.7%, 복지직렬 9.9%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를 고려할 때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표 1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일반직	258,876	264,054	272,748	279,636	288,593	297,418
사회복지 담당(복지직렬, 행정직 등)	35,761	37,207	39,156	41,268	42,932	43,629
사회복지 담당 중 복지직렬	20,308	22,712	24,496	26,075	28,668	29,572
일반직 대비 사회복지 담당	13.8	14.1	14.4	14.8	14.9	14.7
일반직 대비 복지직렬	7.8	8.6	9.0	9.3	9.9	9.9
사회복지 담당 대비 복지직렬	56.8	61.0	62.6	63.2	66.8	67.8

자료: 김희성 외(2022), p. 28 <표 2-1-18>

따라서, 더욱 진전된 이용자 맞춤형 공공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력 확보와 함께, 복지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 유지 방안,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가 가능한 인력관리 등 인사 혁신·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자격·채용·초기 교육·배치 및 전보·승진 및 보상·경력 개발 및 교육 훈련 등 전반에 걸쳐, 지역 복지 업무라는 직무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복지 서비스 전문화 경향을 반영한 일선 인력의 역량 유지 시스템의 체계화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보수교육 이수 제도의 체계화, 수준별·영역별 필요 역량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 중심·실무 중심 교육체계 마련, 상시적 슈퍼비전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요청된다.○

# 공공부문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방안



조재현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관피아와 부정부패 카르텔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자주 보인다. ‘부패 카르텔’, ‘사교육 이권 카르텔’, ‘통신 시장 카르텔’, ‘검찰부패 카르텔’ 등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카르텔’까지 용례도 다양하다.

‘카르텔’은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17세기경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기업연합 형태로 자유 경쟁을 배제하면서 독점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 내지는 담합을 한다는 뜻으로 사용해 왔다.

경제 분야의 담합 행위를 의미하던 ‘카르텔’이 ‘부정부패’와 조어되면서 정치 카르텔, 법조 카르텔, 언론 카르텔 등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됐다. 요즘 들어 새롭게 유행하는 ‘부정부패 카르텔’은 쓰임새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단어가 상징하는 사회현상은 과거와 차이가 없다. 전혀 새로운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것도 아니다. 이미 기원전부터 이집트 상인들은 양털 가격 카르텔을 형성했다. 고대 로마시대의 콜레기움은 중세 이후 길드로 발전한다. 조선시대에는 관료를 중심으로 한 권력 카르텔을 형성했고, 숙종 이후 극에 달한 권력의 카르텔은 조선의 근대화를 늦추기도 했다. 만연한 민관유착의 고리가 누적되어 현대사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재앙으로 이어진 세월호 사건은 ‘관피아’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퇴직 관료의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 등으로 대표되는 관료와 민간의 뿌리 깊은 부패 연결 고리는 우리 사회에 교피아, 모피아, 법피아, 세피아 등으로 확대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제와 오늘의 사회현상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부패 카르텔’은 그러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용어를 지금 정부에서 다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과 평가

그동안 공공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과 노력은 체계적으로 강화되면서 끊임 없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부패 현상은 과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전통적인 형사 법률과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은 적용 대상이나 범위에서 한계가 지적됐고, 규범의 구속력도 단순히 선언적 효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로서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1년의 「부패방지법」을 보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시작으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차례로 제정됐다.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은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함께 존재한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법률로 평가된다. 국민 대다수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와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고위공직자의 연이은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결부된 부패 사건의 발생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 문제는 공공부문 부패에서 가장 핵심적 영역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법적 규제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것은 청렴문화 확산을 기대하도록 한다.

검찰 개혁과 부패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상징적 권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는 오랫동안 공유되어 왔던 문제이다. 하지만 법률 제정 당시부터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 처음 입법 목적과는 달리 규모 면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통제하기에는 미흡한 ‘미니 공수처’로 출범했다. 공수처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지금은 조직 자체의 존립마저도 위협받는 실정이다. 과거와 현재의 부패통제기구 간 대립적 구도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갈등이 표출됐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강화되고 체계화된 부패 방지 정책과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부패 현상은 점차 지능화되고 대담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 따르면 그 수만 총 353건에 이른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가져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예우 비리는 2021년에 있었던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에 이어 발생한 이권 카르텔의 전형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한국전력 임직원이 연루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공부문의 부패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통제 실패는 공적영역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추락한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비리로 해고된 직원들의 해고무효 소송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에너지와 시간은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상실된 공정성의 회복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 부패통제기구의 기능적 통제와 균형

공공부문의 부패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패통제기구 간에 역할과 기능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기관에 권한이 독점되거나, 기관에 분배된 권한과 권력이 엄격하게 절연되어서도 안 된다. 부패통제기구는 서로 기능적으로 통제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부패통제기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각자의 권한에 집중하면서 타 기관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능동적이고 충실한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전통적 부패통제기구의 지위를 유지해 온 검찰, 경찰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그들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에 충실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감찰과 국가기관의 회계 검사 등을 목표로 설치된 감사원은 국가의 최고 감사기구이자 독립된 사정기관으로서 절제된 국정통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가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도 결국은 「헌법」에 충실한 절제된 권력 행사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새롭게 등장한 부패통제기구는 전통적 부패통제기구와 조화를 이루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능적 권력통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운영하면서 제도적 개선사항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보완해야 한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하여 공공부문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홍콩의 영정공서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 조사국과 같이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공수처가 원래 의도했던 강력한 공적 통제기구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공수처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공수처의 장,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신분 보장과 조직, 인사, 예산 등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본래 의도한 고유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공룡 공수처의 탄생이 두려워 미니 공수처를 출범시킨 것은 정쟁의 이념논쟁으로 정의 사회의 이념을 희생시켜 버린 것이다. 공수처의 권한 행사도 결국 경찰과 검찰의 통제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룡 공수처의 권한 남용 가능성은 기인지우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에 대한 입법적 보완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부패통제에 관한 입법적 노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완성 단계에 가까이 와 있다고 평가된다. 「헌법」 이념과 체계화된 법률에 근거하여 부패통제기구의 기능적 권력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오늘날 다시 유행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카르텔의 조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과제



**라영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0년 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한 국가의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일률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성과와 회고를 부탁드립니다.

**신완선** 평가의 본질은 도전이며, 평가는 구성원을 도전하도록 만듭니다. 좁게는 주어진 업무 목표 달성에 도전하고, 넓게는 다른 기관 대비 우수한 실적 달성에 도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공공기관이 지난 40년 동안 경영평가와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해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왔음을 시사합니다. 평가 과정을 통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시대에 맞는 방향 설정을 점검하고, 실행력의 유효성을 강화해 온 여정은 분명 국제적 우수사례(global best practice)라고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경영평가 관련 이해관계자 모든 분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이종욱** 해외를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이 많은 기여를 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렛대 역할을 한 중심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해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유권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강력한 공공기관 관리수단으로 경영평가를 활용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 경영평가는 진화를 거듭하



### 일자

2023년 11월 24일(금)

### 장소

KIPF 아태재정협력센터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1003호))

### 사회

라영재

### 토론자

신완선, 이종욱, 이명환, 이득순

### 정리

강석훈, 이부연

Round Table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며 기관이 성장하는 데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명환** 시장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우, 태생적으로 내부 지향적이며 관료주의적 위계 문화가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둔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평가의 가장 큰 성과는 부분적으로나마 외부 지향성을 통한 사회적 변화와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주었고, 내부 지향적 위계 문화를 성과지향적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부분적으로나마 기관 간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경영관리 체계상 전반적인 상향 표준화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득순** 경영평가 이전에는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 공급자 위주로 서비스했던 것에 반해 지금의 기관들은 국민이 실제로 어떠한 불편을 느끼는지를 토대로 과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경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됐다는 점도 체감합니다. 평가지표를 발굴하는 노력으로 경영활동의 수준을 향상하고 체계화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라영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과 재무실적 향상 등 경영혁신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열식 평가, 평가의 신뢰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및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완선** 경영평가제도의 미래 모습을 구상해야 합니다. 경영평가제도의 결정적 기여도는 기관의 내부평가 문화를 정착시킨 것입니다. 조직의 내부평가 수준이 곧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자체평가 시스템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외부 경영평가 역시 기관의 이사회에 위임해 전문가를 초빙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이사회와 내부평가 제도의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욱** 경영평가는 정부가 교체되는 시점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이행 동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공익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경영평가가 과연 국민의 편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평가가 단순히 정부의 사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획일적 평가방식에 의해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오히려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깊게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이명환** 단기 실적 중심의 출세우기식 평가로 인해 공공기관의 장기적인 성과와 본질적 성과가 도외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경영평가에 대한 불만과 불필요한 피로감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성 부족은 평가기준이 획일적이며 기관의 사업 특성과 내부 문제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그 요인입니다. 평가단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득순** 경영평가제도는 40년 이상 지속되면서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 관련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 다음으로 경영평가가 정부 정책 수행을 강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평가제도가 수시로 변경되어 공공기관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 마지막으로, 단기성과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의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라영재** 민간기업이나 해외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한 경영평가 시스템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완선** 최근 혁신에 주력하는 UAE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경영평가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평가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전문가(주로 컨설턴트)를 평가위원으로 초빙해서 진행합니다. 각 부처의 사업별 실행 지표와 혁신과제 선정은 정교한 편이지만, 각 부처의 실질적 개선 활동은 우리나라에 비해 실행력이 상당히 약하며, 인센티브가 약한 점이 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프랑스는 자체평가 개념으로 위임해 운영하고 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한국이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국가에 전파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모든 기관이 국제적 우수사례를 만드는 데 도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가 그러한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작지만 강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규모가 크므로 차원이 다른 경영평가 시스템의 전파력을 가질 수 있기에,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종욱** 2010년 이후 새롭게 도입된 영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즉 맞춤형 평가제도(Tailored Review)라 불리는 제도를 살펴보면 합니다. 영국은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로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수정·보완했습니다. 맞춤형 평가는 2단계로, 1단계에서는 ‘조직의 존립 필요성’과 ‘조직 형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해당 기관의 향후 ‘업무 개선 및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평가 주기는 5년으로, 공공기관은 평가 후 ‘합의된’ 제안사항을 몇 년에 걸쳐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행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주무부처는 피평가기관의 이행 과정을 점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리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이중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이명환**  
IBS컨설팅컴퍼니  
대표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성과혁신처장

**이명환** 국내에서 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유사한 제도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평가, 정부 부처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가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출연연 평가나 지방공기업 평가의 경우, 기관 유형이 제한되어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의 장점은 사업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특정되어 참여해 정책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영재**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평가제도의 혁신 방안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완선** 지금은 기계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를 달나라에 보냈을 때 아폴로 안내 컴퓨터(Apollo Guidance System)가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23 모델과 비교하면 8만 배 느리고 8백만 배 저장 기능이 작았습니다. 바로 이 핸드폰이 일종의 휴먼 안내 컴퓨터(Human Guidance System)인 셈입니다. 게다가 자체 학습하고 판단하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기능까지 개발되어, 웬만한 것은 순식간에 모방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경영평가는 영역을 좁혀서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올바른 리더십, 대표 사업역량, 그리고 통합 문화입니다. 공정·투명을 기반으로 한 방향 설정 능력, 사업을 통한 국가 발전 주도과 글로벌 선도, 행복한 노사문화에 기반한 통합적 발전 모델 확보를 위한 실적을 집중 평가하면 됩니다. 양적 평가를 질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특히 비계량 평가가 그렇습니다. 경영시스템 수준은 경영공시를 더욱 활성화해서 각종 선행지표를 자동 집계하여 계량으로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머신 분석시스템이 경영평가를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선도적 첨단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중욱**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폭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경영평가가 과연 당초에 기대했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경영평가의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경영평가는 「공운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어 관련 법 조항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경영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경영평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먼저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 평가단의 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며, 평가단의 운영에 있어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사업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절대평가 영역의 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의 평가로 인하여 대부분 10년 치 정도의 기관별 실적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각 기관의 5~10년 평균 실적을 바탕으로 정규분포상의 기관별 평가 성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득순** 경영평가는 편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기관 혁신 가점 평가의 경우,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편람이 없어 기관 입장에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효율성 강조로 인해 재무성과 지표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경영평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 후보자를 검증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사 방식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우수사례(BP)는 대면 평가, 실적보고서는 서면 평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공공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규모를 축소하고 명칭도 경영평가급으로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과급 잔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본래의 취지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현 평가지표 비중을 줄이고,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평가지표 비중을 늘려 기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방식과 관련해서 단기 평가와 더불어 중장기 관점의 지속가능성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기 실적이 다소 저조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이 적정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라영재** 최근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는 경영평가위원의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 공직자 「청탁금지법」 수준의 신규 평가위원 선임 기준 강화,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 허위 제출 기관 페널티 부여 등 평가위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평가위원의 자격과 도덕성 문제, 기관과 평가위원 간 유착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향을 부탁드립니다.

**신완선** 오랜 기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과제입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적용하면 최소한의 선별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평가단에서도 그동안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높으면 설사 유착관계가 아니더라도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유착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면 평가위원이 제도가 규정한 윤리성을 지키면서도 항상 새로운 기관을 평가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동일한 기관을 다시 평가할 시점이 되면 이제 평가를 졸업하고 후배들에게 위임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은 항상 새로운 평가위원이 배정되는데 평가의 전문성(즉,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체의 3분의 2 정도는 됩니다. 평가위원의 신규성, 전문성, 형평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면 해결될 주제입니다. 경영평가단은 높은 전문성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종욱**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영평가위원 선임 기준과 자격의 강화 등의 내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이해하나, 이제 중요한 일은 단기간에 공공기관의 경영과 사업을 이해하고 정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위원을 어떻게 선임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일은 현행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난 이상,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경영평가를 위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평가 전담 조직의 설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평가단 후보군을 구성하고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영평가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명환** 기계적이고 형식화된 청렴성 확보방안은 전문성을 상쇄시키는 역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착관계로 볼 것인가, 전문성으로 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히 기계적이고 형식화된 청렴성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청렴성 확보 부분은 회피 신청을 받고 점수를 줄 수 없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정보를 제공받되 평가에서는 배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 정보를 숨기거나 회피 신청을 속일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득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 공공기관에 통보되면 일주일 정도의 기간 안에 연구·자문실적 등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공공기관은 평가실적보고서 작성 등 평가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위원 후보자군을 3분기에 구성하고, 4분기에 기관 검증 및 별도 검증위원회 자체 검토로 평가위원을 미리 확정한다면 공공기관이 후보자 검증을 미흡하게 하여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가위원은 범주별로 1~2명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관리 지표별 담당 평가위원을 현재 1명에서 2~3명으로 늘려 개별 평가위원의 특정 지표 평가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NOW〉는 최근 쟁점이 되는 국내 외 동향 및 기관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과 변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공정책 동향’에서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보도자료와 현안을 다루며, ‘Trend Focus’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용 로봇산업의 위상과 글로벌 시장의 산업 동향 그리고 전망을 들어 본다. ‘글로벌리포트’에서는 2005년, 2015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특징, 2024년 가이드라인의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식품 안전 규제 및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혁신이야기’에서는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고민과 노력, 성과를 우수사례로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의 한국형 해양폐기물 재활용 플랫폼 구축 사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 Trend Focus

지능형 로봇산업의 글로벌 동향 및 전망

##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202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동향: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영향

##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글로벌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보 안전관리 지원

## 혁신이야기

해양환경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EMPATHISE

BRAND

IMPROVE

ANALYZING

DEFINE

CUSTOMER

NEW AREA

TEST

DRM

TYPE

DATA

DEVELOPMENT

## 정책동향 소식



###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기획재정부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화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정책소요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 2027년 자산의 경우 2023년 대비 152.6조원 증가한 1,137.7조원, 부채는 2023년 대비 72.0조원 증가한 743.7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214.3%로, 2022년 대비 10.9%p 상승했다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 등 대외 환경 개선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0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올해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비해 부채비율이 연평균 28.2%p 상승했는데, 이는 2022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두 계획을 모두 작성한 34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12.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부채 전망이 2022~2026년 계획보다 증가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2023~2027년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34.1조원 규모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이번 8.1조원의 신규 자구 노력을 발굴해 총 42.2조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통해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026년 부채비율은 5.1%p 추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기술마켓, 통합 플랫폼 통해 제2의 도약 추진

기획재정부가 11월 2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기술마켓이란 공공기관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심의하고 인증을 거쳐 구매하고, 기술 개발, 정책금융, 해외 진출, 디자인, 인력 분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우선, 기존 3개 분야(SOC·에너지·ICT)로 나눠 운영하던 기술마켓 플랫폼을 11월부터 '중소



기업기술마켓(www.techmarket.kr)'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기술 구매를 위한 공공기관의 심사·인증 절차도 표준화됨에 따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원스톱(One-Stop)으로 기술·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정책금융, 해외 진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접근성·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어, 기술마켓에 등록되는 중소기업 기술·제품 수(2022년 390개 → 2027년 3,500개, 9배 증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실적(2022년 1,579억원 → 2027년 1조 1,000억원, 7배 증가)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ChatGPT) 기능이 탑재됨에 따라 기술 정보만 입력하면 기술 등록 심사를 위한 신청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지원 프로그램(예:기술 개발, 해외 진출)까지 맞춤형으로 추천되는 등 올케어(All-Care)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정부는 “기술마켓을 잘 모른다(65.5%)”라고 답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술마켓을 ‘공공기관과 기업, 기술로 잇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찾아가는 기술마켓’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홍보물(리플릿)과 최신 정보를 포함한 소식지(뉴스레터)를 제작·배포하고 현장 방문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며 라디오 등을 통해 기술마켓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



기획재정부가 9월 20일 임기근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투자사업 규모가 큰 10개 기관이 참석해 지금까지 집행 실적과 하반기 집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재 각 기관이 겪는 사업 현장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그리고 향후에 전망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집행 실적 점검 결과, 주요 공공기관은 폭우와 혹서기에도 불구하고 8월 말까지 당초 수립한 연간 투자계획 63.4조원 중 40.9조원(64.6%)의 집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연말까지 연간 투자계획 63.4조원의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는 한편, 1.8조원 + α의 추가적인 투자 소요를 발굴·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각 공공기관은 추후 연말까지 매월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 상황 점검과 현장 애로요인의 해소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국민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이와 함께 국가 필수 기반시설과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집행 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능형 로봇산업의 글로벌 동향 및 전망



박상수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장

## 로봇의 정의와 종류

로봇(robot)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대략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Karel Capek)는 1920년에 집필한 희곡 'Rossum's Universal Robots'에서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묘사하면서 로봇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로봇의 어원은 체코어로 '노동'을 의미하는 'robota'에서 유래했는데, 이후 로봇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기계장치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됐다. 우리나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는 지능형 로봇을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포함)'로 정의한다. 로봇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크게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한다. 제조용 로봇은 최종 완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과 소재의 구매, 조달부터 조립, 검사, 출하까지 모든 생산 공정에 적용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다. 자동차, 전기·전자 등 소품종 대량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갖춘 제조 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이미 시장 성숙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평·수직다관절 로봇, 용접, 페인팅 로봇과 같이 고난도 및 고위험 작업을 수행한다. 서비스용 로봇은 여가·교육 지원, 가사 보조, 환자·노약자 치료 및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도움을 주거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으로, 의료, 군사, 사회안전, 물류 로봇과 같은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청소, 가사, 교육, 헬스케어 로봇과 같은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제조용 로봇과 달리 아직 시장 초기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첨단 IT 융합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용 로봇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 글로벌 로봇산업 동향

### (1) 제조용 로봇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이 9월 말 발표한 "World Robotics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제조용 로봇의 신규

판매 대수는 2021년 대비 5.1% 증가한 55만 3,052대로 역대 최대 연간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 물류 대란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로봇 도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제조용 로봇은 2년 연속 50만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용 로봇 분야에서는 특히 협동 로봇의 성장세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협동 로봇은 기존 제조용 로봇에 적용되던 안전 펜스 없이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제조용 로봇이다. 전통적인 제조용 로봇 대비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면서도 설치 비용의 부담이 적고 공간 활용성이 높아,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은 연간 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협동 로봇 판매 대수는 3만 8,956대로, 전년 대비 31.5%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7.6%를 기록하면서 전체 제조용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8%에서 2022년에는 9.9%로, 불과 5년 만에 7.1% 포인트 상승했다. 협동 로봇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통한 높은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 제조 현장뿐 아니라 바리스타 로봇, 튀김 로봇 등 푸드테크 분야

에서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전문 서비스용 로봇

전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운송·물류 로봇이 주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세계 전문 서비스용 로봇의 신규 판매 대수는 15만 7,599대로, 전년 대비 47.9%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부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 운송·물류 분야가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는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接客로봇의 판매 비중은 15.6%로 아직 시장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전년 대비 124.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 시장에서는 RaaS(Robot as a Service)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RaaS는 기존의 고가 로봇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과는 달리, 매월 일정액을 결제하여 로봇을 임대하거나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의미한다. 로봇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로봇을 도입할 수 있으며, RaaS를 통해 자사의 생산라인에 시범적으로 로봇을 적용해 로봇 생산시스템 도입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RaaS 제공 업체가 로봇 시스템의 유지·보수·관리 서비스와 함께 클라우드를 통한 통합 제어 솔루션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관리 비용 없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비즈니스

표 1 세계 제조용 로봇 및 협동 로봇 판매 동향

(단위: 대,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가율	
							전년 대비 (2022년/2021년)	연평균 (2017~2022년)
제조용 로봇	399,640	423,321	386,859	389,525	526,144	553,052	5.1	6.7
협동 로봇	11,107	18,518	20,810	26,045	41,729	54,868	31.5	37.6
협동 로봇 비중	2.8	4.4	5.4	6.7	7.9	9.9	-	-

자료: IFR(2023), "World Robotics 2023 - Industrial Robot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세계 전문 서비스용 로봇 판매 및 RaaS 모델 동향



구분	판매 대수				RaaS 모델			
	2021년	2022년	비중 (2022년)	증가율 (전년 대비)	2020년	2021년	비중 (2021년)	증가율 (전년 대비)
전문서비스	106,523	157,599	100.0	47.9	14,241	21,420	100.0	50.4
농업	6,762	7,986	5.1	18.1	63	85	0.4	34.9
전문 청소	6,362	6,888	4.4	8.3	6,742	6,759	31.6	0.3
검사·유지	603	776	0.5	28.7	103	106	0.5	2.9
건설 및 철거	22	56	0.0	154.5	11	12	0.1	9.1
운송·물류	59,613	86,044	54.6	44.3	4,149	6,926	32.3	66.9
의료	9,784	9,349	5.9	-4.4	-	-	-	-
탐색·구조	1,478	1,749	1.1	18.3	-	-	-	-
접객	10,912	24,519	15.6	124.7	3,155	7,504	35.0	137.8
기타	10,987	20,232	12.8	84.1	18	28	0.1	55.6

자료: IFR(2023), "World Robotics 2023 - Service Robot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니스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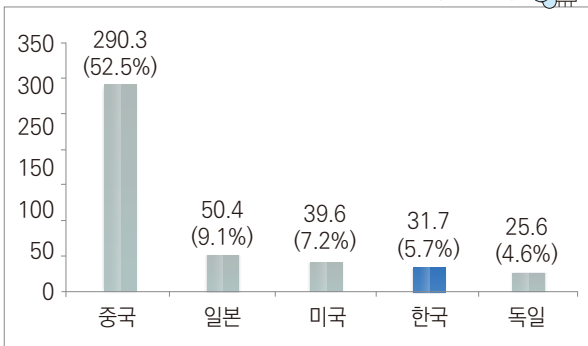
### 우리나라 제조용 로봇산업의 글로벌 위상

한국은 2022년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대수 3만 1,716대로, 세계 시장에서 5.7%의 점유율을 보이며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세계 제조용 로봇 판매 실적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독일을 포함한 상위 5개 국

가가 전체 시장의 79.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용 로봇 시장으로, 2022년 전 세계 제조용 로봇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 29만여대(52.5%)가 신규 설치되어 2013년 세계 최대 로봇 시장으로 등극한 이후 현재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며 세계 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은 로봇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로봇 밀도란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운영하는 로봇 대수를 의미하며, 2022년 기준 한국의 로봇 밀도는 전 세계 평균 로봇 밀도인 151대의 6배를 상회하는 1,012대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은 제조용 로봇 주요 수요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높은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힘입어 2010년 일본을 추월한 이후 현재까지 로봇 밀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림 1 주요국 제조용 로봇 판매 대수 및 점유율(2022년)  
(단위: 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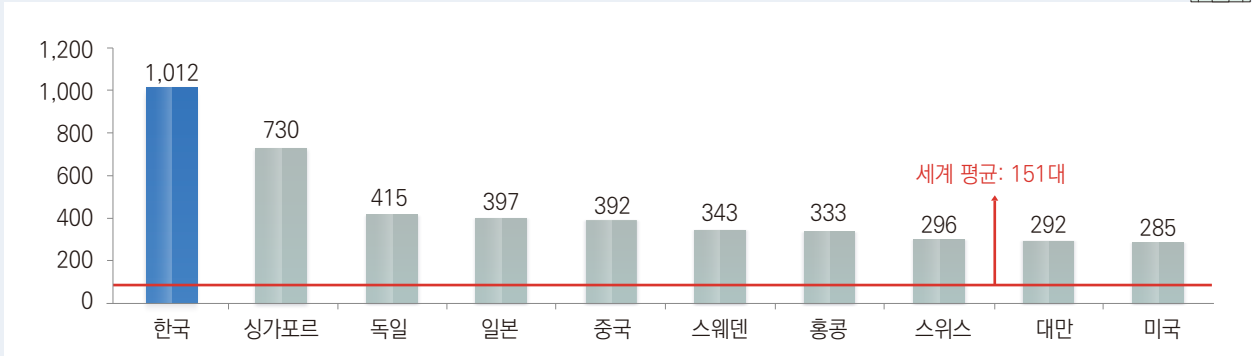


자료: IFR(2023), "World Robotics 2023 - Industrial Robot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세계 제조용 로봇 시장 전망

세계 제조용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연평균 6~7%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2026년 신규 로봇 판매

그림 2 주요국의 로봇 밀도 비교(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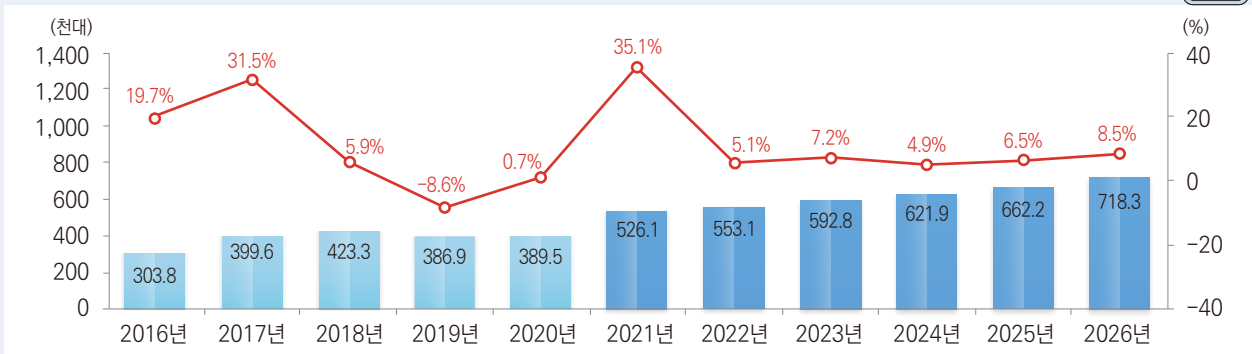
자료: IFR(2023), "World Robotics 2023 - Industrial Robot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대수는 72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의 경기 부진 흐름이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 자동화에 대한 투자수요는 다소 위축되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공급망 경색, 생산 시설 국내 이전(리쇼어링)으로 인한 글로벌 생산기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봇 기반 생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제조용 로봇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인 생산 인구 감소,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메가트렌드 역시 제조용 로봇 도입을 가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RaaS를 통한 로봇 도입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는 로봇 시장의 성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RaaS는 현재 서비스용 로봇 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있지만, 기존 소유 및 구매 방식에서 임대하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RaaS)로의 전환은 로봇 투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며, 구매자가 사용 목적에 따라 로봇의 종류와 도입 시점, 사용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용 로봇뿐만 아니라 제조용 로봇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세계 제조용 로봇 시장 전망



주: 2023~2026년은 전망치

자료: IFR(2023), "World Robotics 2023 - Industrial Robot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2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동향: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영향

현재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하 '공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두 번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OECD는 OECD 회원국, 파트너국가, 국제기구 및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상반기 중에 3번째 공기업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간할 계획이다. 『공공경제』 Vol. 16에서는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연혁, 2005년, 2015년, 2024년 가이드라인 각각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의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란, 용어 그대로 기업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데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정, 관행 및 절차상의 통치 체계를 의미한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 및 안정의 기본 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 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모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되어, OECD가 1999년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최초의 지침인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체계화한 최초의 국제규범인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진, 이사회,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 일련의 역학관계이자, 기업의 목표가 수립되는 과정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을 결정하는 전체적인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즉,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체계부터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진과 주주·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시장 규제 및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대응, 기업정보 공시, 경영성과 평가, 내외부통제, 경영 관행 및 의식, 기업조직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관리하는 모든 영역을 총칭한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때 IMF 구제금융 차관을 위한 양해각서에 한국의 기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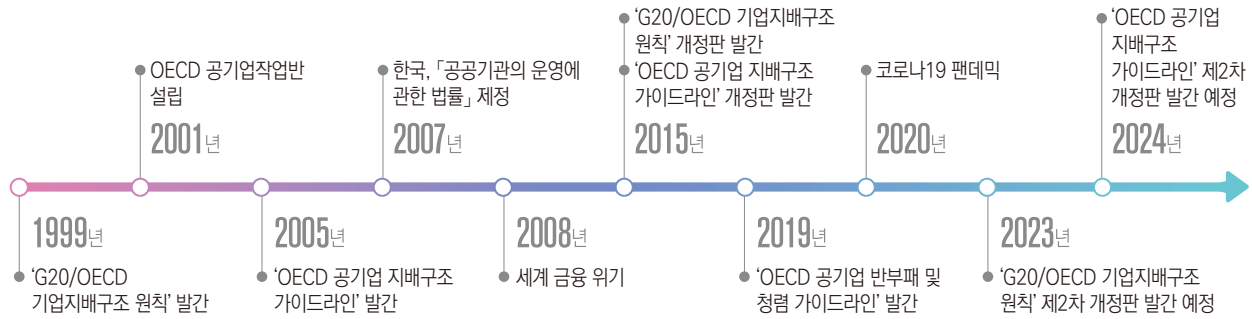
### 강석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본 원고는 현재 OECD 공기업작성법에서 진행 중인 '2024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수정 작업과 OECD 공기업작성법 정례회의 및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국제회의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저자가 작성한 원고임

[그림 1]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연혁



자료: 저자 작성

배구조 개선이 우선조건으로 명시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의 독립성 제고, 국제 기준의 회계제도 도입, 주주 권리의 강화, 금융감독체계 강화, 집단소송제 및 대표소송제 등을 기본 골격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 및 연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ECD는 1999년에 최초로 ‘1999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999)’을 발표했다. 이 원칙의 핵심은 각국의 여건에 맞게 기업지배구조를 유연하게 수립하되,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이 중심이다.

OECD는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공기업 적용을 목적으로 2001년 OECD 금융기업국(OECD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내에 공기업작업반(OECD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zation Practices)을 설치했다. 공기업작업반은 국가별 공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세계 최초의 국제 상임기구로, 매년 두 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민영화 정책 시행에 관한 OECD 38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20여개 파트너국가 간의 정책 교류와 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있다. 2002년 6월,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는 공기업작업반에 공기업에 특화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이에 공기업작업반은 2005년에 ‘2005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05)’을 발간하고, 회원국과 파트너국가에 이를 권고했다. 2015년 OECD는 기업지배구조 원칙 제정 이후 10년간 개별 국가들의 기업지

배구조 관련 정책 변화와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1999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첫 번째 개정판인 '2015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15)'을 발간했고, 같은 해 '2005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개정판인 '2015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을 발간했다. 추가로 2019년에 OECD 공기업작업반은 공기업 부문의 부정부패와 정치적 유착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첫 모범 지침인 'OECD 반부패 및 청렴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in State-Owned Enterprises)'을 발표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들은 '2024 공기업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2023년 9월, OECD는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2번째 개정판인 '2023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을 발간했다.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2번째 개정판인 '2024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은 2024년 상반기 중에 발간 예정이다.

## 2005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05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제정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으로 수정·보완해 2005년 4월에 제정됐다.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은 공기업의 투명성,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와 소유주인 정부의 전문성 강화이다. 가이드라인은 주로 상업적 공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2005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1) 소유권 기능의 중앙집중화, 2) 공기업의 경영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확보, 3) 공기업 관리의 투명성 제고, 4) 이사회 권한 및 독립성 강화, 5) 공기업 목표 설정 및 공시 강화 등이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이사회 CEO 및 경영진, 이사에 대한 임면권 보유 등을 권고하며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으로 공기업 이사회 권한,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5 공기업 가이드라인'은 발간 이후 공기업 소유권, 지배구조, 운영 방식 등에 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국제적 모범 지침으로 자리매김했고, 특히 한국의 공기업 관리 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 2015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년 11월, OECD는 10년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공기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대두된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1차 개정판인 '2015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5 공기업 가이드라인'은 2005년과 동일하게 소유주로서 국가의 전문성 강

화와 공기업의 효율성,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기업과 민간 기업 간의 경쟁중립성 조성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됐다. 2015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1) 보다 명확한 국가 소유의 근거, 2) 시장에서의 공기업 활동에 대한 경쟁 중립성 조성, 3) 공기업의 주주와 기타 투자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4) 보다 전문적인 공기업 이사회, 5) 공시 및 평가제도 제고와 정책 일관성 강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의 공기업 소유 근거의 명확화와 지배구조 내 국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세, 금융, 조달 등에 대한 공기업 특혜를 방지하고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중립성의 개념이 도입됐다. 또한, 중앙집중형 소유권 기관 또는 조정기관 설립, 국제회계기준 및 구분회계 도입, 엄격한 책임경영 기준 도입 및 준수, 이사회 구성 시 양성평등 및 차별금지 정책(여성 이사 쿼터제 도입 또는 근로자이사제도 도입), 독립적인 외부 감사제도 운영,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설치, 전체 공기업에 대한 통합 보고서 작성, 리스크 관리 체계 도입 등을 권고하고 있다.

## 202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OECD 공기업작업반은 2022년부터 OECD 회원국,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3월 개최 예정인 제42차 공기업작업반 국제회의에서 국가 간 최종 검토와 OECD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4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2023년 9월에 발간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주요 개편 사항과 2019년 발간된 'OECD 공기업 반부패 및 청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공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후 지난 10년간(2015~2024년)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는 한편, 현행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기 보다는 일부 권고안의 내용을 명확히 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기업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한 새로운 파트가 추가될 예정이며,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와 책임경영 파트는 공기업과 지속가능성 파트로 흡수되고, 기존의 공시 및 투명성 파트에 '책무성' 문구가 추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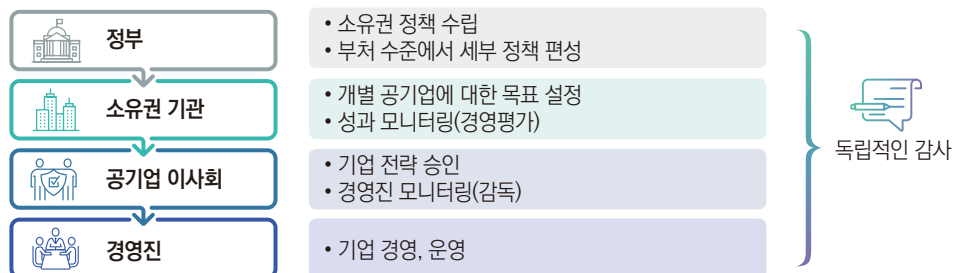
##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의의

2005년 처음 제정된 이래 2번째 개정을 진행 중인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각 국가의 고유하고 어찌 보면 민감한 영역이었던 공기업 부문에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사례와 모범 지침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 가이드라인'은 많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공기업 모범 지침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많은 국가에서 공기업 체계, 지배구조, 소유권, 공시 및 투

명성 제도, 평가제도 등을 개혁한 사례가 다수 목격됐다. 예컨대 다수의 OECD 회원국은 공기업 이사 선임제도 개편, 자격 기준 강화 등 공기업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혁신을 추진했으며, 프랑스, 영국, 핀란드 등 많은 국가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공기업 소유권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도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러 선진화된 공기업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도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한 'OECD의 국가별 공기업제도 점검'을 통해 자국의 공기업 부문을 개혁하고 있다. 현재까지 OECD의 공기업 점검을 받은 국가는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13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OECD의 권고안에 따라 중앙집중형 소유권 기관을 신설하는 등 많은 공기업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이상적인 공기업 지배구조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먼저 정부는 단일의 부처 또는 지주회사에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집중하고 전문적인 소유주로서 소유권 정책과 공기업 정책을 수립한다. 소유권 기관은 개별 공기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산하 공기업들을 관리한다. 공기업 이사회는 기업 전략을 만들고 경영진을 모니터링하며, 경영진은 기업을 책임감 있게 경영 및 운영한다. 그리고 정부, 소유권 기관, 공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이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제도와 강력한 내부통제/준법감시 제도의 체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OECD 가이드라인'이 경영과 감독을 분리하는 이원이사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에서 일원이사회를 적용하는 한국의 사례에 완벽히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유권 기관의 중앙집중화, 성과 모니터링(평가) 및 공시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의 지향점은 한국의 개혁 사례와 궤를 같이 한다.○

[그림 2]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공기업 지배구조



자료: OECD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글로벌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보 안전관리 지원


2022년 우리나라 식품등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05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로 회복한 국민의 소비 재가동 등에 힘입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 관점에서 내수시장에는 한계가 있다. 연이은 고물가 시대 속 소비자의 지갑은 열리기 쉽지 않고, 국제곡물가 상승은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정 등은 식품업계에 큰 타격으로 이어져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러 대응책 가운데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하나의 현책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K-팝, K-드라마 등 K 문화 콘텐츠에 이어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K-푸드는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 국제기준규격 조화를 향한 행보와 더불어 끊이지 않는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겠다.

## 해외 규제 정보에 기반한 전략적 시장 진입

식품산업에 혁신 기술을 적용한 4차산업, 푸드테크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 국민 먹거리에 자연스럽게 세포배양육 같은 대체식품 범주가 형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분야


[그림 1]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 기준 및 규격

**정의**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품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기준·규격**



대체식품임을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과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을 모두 적용

- (1) 산가: 5.0 이하(유당·유처리식품에 한한다.)
- (2) 과산화물가: 60 이하(유당·유처리식품에 한한다.)
- (3) 세균 수:  $n = 5, c = 0, m = 0$ (멸균제품에 한한다.)
- (4) 대장균군:  $n = 5, c = 1, m = 0, M = 10$ (살균제품에 한한다.)
- (5) 대장균:  $n = 5, c = 1, m = 0, M = 10$ (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방선녀**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정보부장

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제2023-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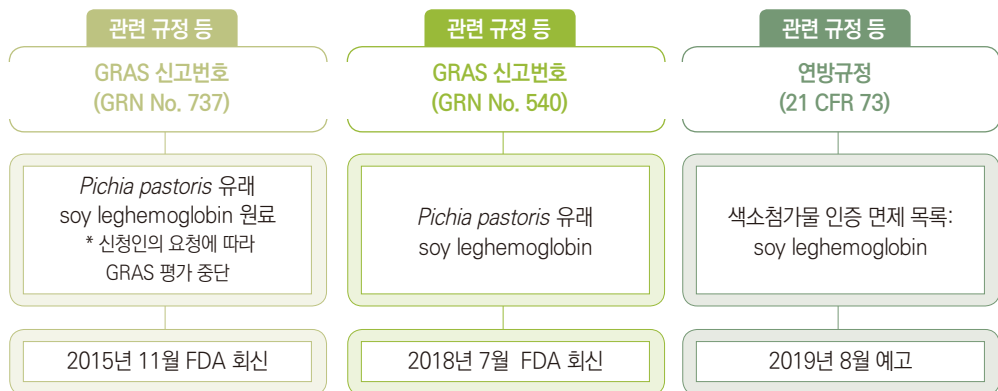
규제혁신 과제로 대체식품 표시 판매 식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기준 신설에 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불과 지난해 12월의 일이다. 전 세계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대체식품 기준·규격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국내에서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 및 생산 등 시장 규모 확대에 대응하고, 효율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그에 따라, 콩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고기의 식감, 색상, 조직감 등을 유사하게 만든 콩고기 패티는 기존에 '두류가공품'으로 해당 기준·규격을 따라야 했다면, 앞으로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판매 시 '두류가공품'과 '대체식품' 기준·규격을 함께 적용받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중에서 현재 버거킹 같은 전 세계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7천여 곳과 코스트코 등 주요 대형 유통채널에 식물성 패티를 납품하고 있는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를 예로 들어보겠다. 임파서블 푸드는 고기의 맛과 풍미, 질감을 내는 특징이 '헴(heme)'이라는 철분을 함유한 단백질 분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 성분이 콩의 뿌리혹에서 추출한 헤모글로빈(soy leghemoglobin)에도 존재함을 찾아냈다. 임파서블 푸드는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한 효모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이 빨간색 헴 성분으로 만든 식물성 버거인 임파서블 버거(Impossible Burger)를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2018년, 임파서블 버거의 핵심 성분인 헴은 미국의 식품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청(FDA)에서 안전성을 인정(일명,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성분(GRAS\*))받았다. 당초 2014년에도 임파서블 푸드는 GRAS 인정을 받고자 했으나 섭취 안전성 자료 부족 등 FDA의 추가 의견을 계기로 이듬해 FDA에 평가 중단을 요청한 바 있었다. 이후 3년 만에

[그림 2] soy leghemoglobin의 FDA 규제·승인 현황



\*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자료: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GRAS 신고 데이터베이스

시험 데이터 등을 보완해 최종 인정을 받은 셈이다. 또한, 임파서블 푸드는 같은 해인 2018년, 간 소고기 유사품(ground beef analogue products)에 사용하는 색소첨가물로서 인증 면제를 요청해 뿌리혹 헤모글로빈을 별도 인증 없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색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식품첨가물이 GRAS 관리 대상이 아니냐, 임파서블 푸드의 홍보·광고에서는 뿌리혹 헤모글로빈이 빨간색 또는 갈색으로 묘사되고 있고, 제품 외관에 적색을 띠도록 하는 성분이기 때문으로, 색소첨가물로 볼 수 있다는 FDA의 의견이 있었다.



종합해 보면, 미국 시장에서 임파서블 푸드는 버거의 핵심 성분인 콩의 뿌리혹에서 추출한 헤모글로빈을 미국의 안전관리 요건에 따라 원료 성분으로서 GRAS 인정을 받았고, 식품에 사용하는 색소첨가물로서 인증 면제를 받아 규제 허들을 무난히 뛰어넘었다. 이어,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든 음식에 적용되는 할랄 식품과 유대교 율법에 따라 만든 음식에 적용되는 코셔 식품 인증도 받아 종교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기도 했다.

이처럼 임파서블 푸드의 성공 비결은 해당 시장과 국가가 마련한 까다로운 규제 기준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처한 데 있다고 보인다. 우리 기업도 정부와 공공이 제공하는 수출지원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면 이 같은 수출 성공 사례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주요 수출 부적합 정보를 토대로 재발 방지

차고 넘치는 정보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정보는 정부·기업 등의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핵심 요소이다. 유럽과 일본은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에 발생한 수출 부적합 사례를 숙지해 유사 사례가 향후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그림 3]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등 중요성에 관한 유럽·일본 현황

 <p>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식품안전백서」</p>	<p>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식품과 사료의 잠재적 위해(hazard) 규명에 각별히 중요하다.</p>
 <p>일본 「식품안전기본법」 제17조</p>	<p>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정할 때 국민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의 수집, 정리, 활용 및 그 외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p>

자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2000), 「식품안전백서」 및 일본 「식품안전기본법」 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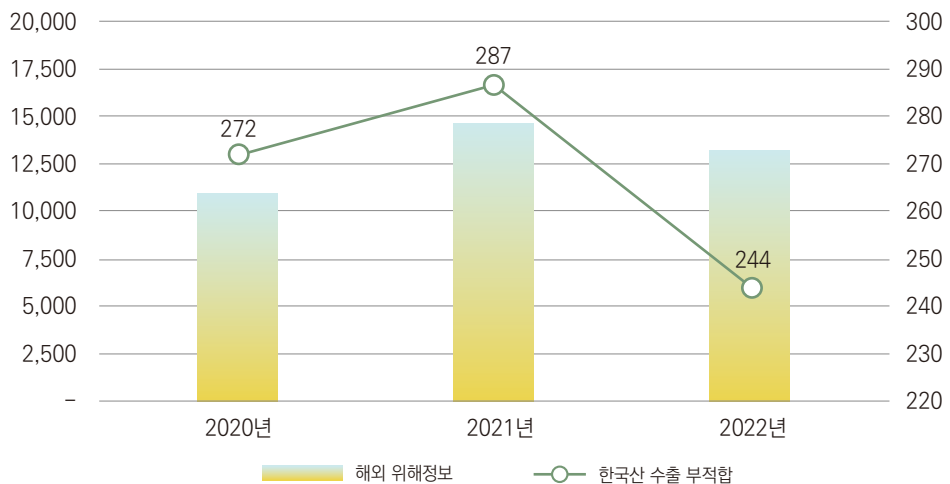
\*  
위해정보: 특정 식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  
정보

록 정보력을 키우는 방안도 수출 전략 중 하나가 되겠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수집·제공하는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는 연간 약 2만 5,000건으로 그 중 최근 3년간 해외에서 발생한 위해정보\* 대비 주요 수출 4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과 유럽연합에서 발생한 한국산 식품의 수출 부적합은 총 803건으로, 2020년에 272건, 2021년 287건, 2022년 244건이 발생했다.<sup>1) 2)</sup>

[그림 4] 최근 3개년 해외 위해정보 및 한국산 수출 부적합 발생 현황

(단위: 건)



자료: 식품안전정보원

해외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유는 크게 국가 간 단순 기준·규격 차이에 의한 경우, 수출 상대국이 정한 품목(식품 유형)이 국내와 다른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품목에 국내와 해외에서 관리하는 기준규격 항목이 다른 경우가 있다. 다음에서 사례별 예시를 들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대만으로 수출한 소스류에서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이 검출되어 부적합 조치를 받은 경우가 있다. 대만은 사용을 승인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0.2g/kg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국가 간 기준·규격 차이로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국내와 수출 상대국이 다른 식품 유형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과자류로 관리되나 중국은 과자류와 팽화식품\* 두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각각의 품목에 설

\*  
팽화식품: 곡류, 서류,  
두류, 과채류 또는 견과  
종자류 등을 주원료로  
팽화 공정을 거쳐 제조한  
조식이 느슨하거나  
바삭한 식품<sup>3)</sup>

1) 식품안전정보원, 「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2023. 6.

2)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20~22년)」, 2023. 6.

3)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 중국 GB 17401-2014 팽화식품

정 및 관리하는 이화학지표나 미생물 기준이 다르므로 두 가지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국내에서 수출한 과자류에서 아스파탐 사용기준 초과로 부적합이 발생했는데, 중국에서는 팽화식품으로서 허용된 기준이 0.5g/kg로, 과자류 허용 기준인 1.7g/kg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절임식품, 젓갈류, 즉석조리식품 등으로 판매하는 식품을 냉동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냉동식품 기준규격을 적용받는다. 국내는 대장균군이 아닌 대장균으로 관리하지만, 일본은 대장균군(음성)으로 관리하여 발생하는 부적합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수출 상대국과 국내의 관리 대상 기준·규격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수출 부적합 사례에 대한 정부와 공공의 교육·홍보는 실제 팔목할 만한 결과를 내기도 했다. 미국에서 지속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표시 부적합의 경우, 지난해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 정부와 수출 기업이 일구어낸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표 1〉 한국산 대미 수출식품의 표시 부적합 3개년 현황

(단위: 건)

순위	표시 부적합 상세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1	성분 미표기	69	51	11	131
2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기	69	28	1	98
3	영양정보 미표기	49	35	12	96
4	영어 미표기	37	43	16	96
5	허위 또는 오표시	34	34	0	68
6	가독성	25	22	5	52
7	색소 미표기	6	5	4	15
8	라벨 표시 부적합	4	2	4	10
9	수량 정보 미표기	1	2	6	9
10	일반명 미표기	6	2	0	8
합계	-	309	238	72	619

주: 식품 1건에 부적합 사유가 여럿인 경우, 개별 건으로 처리하므로 연간 총계와 차이가 있음  
 자료: 식품안전정보원(2023. 6.),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20~’22년)」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규제와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K-푸드’ 열풍이 불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가 성장하는 등 식품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여전히 열리고 있는 만큼 기업에는 수출 기회와 시장 가능성이 아직 무궁무진하다.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한국산’이라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철저한 계획과 전략으로 접근함이 필요하겠다.○

# 해양쓰레기의 가치 있는 변신! 한국형 해양폐기물 재활용 플랫폼 구축

## 추진 배경

### »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우려 · 대응 확산

-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최대 14백만톤 해양 배출, 우리나라의 연간 발생량은 6.7만톤 추정\*

\*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

### » 국정과제 이행과 전 주기적 관리차원에서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국정과제 89번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추진 내용

비전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 수산업 환경 조성			
사업목표	해양폐기물 물질 재활용률 2021년 수거량 대비 10% 미만 → 20% 이상			
추진전략	발생 예방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강화	재활용산업 지원
추진과제	어선 발생 생수병 해양투기 사전예방 캠페인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한 재활용 공공집하장 운영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으로 재활용 강화	재활용 공적 인증제 도입 및 브랜드 개발

### » (발생 예방) 어선 발생 생수병(PET)의 해양투기 사전예방 캠페인 추진

-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과 협업하여 우생순\* 캠페인의 전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자발적인 해양폐기물 해양투기 예방 강화

\* 우생순(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 해양경찰청

- 어민 대상 교육 홍보
- 어선 대상 컨설팅, 점검
- 우수 어선 인센티브



#### 소형 어선

- 수협 연쇄점 생수 구매 및 폐생수병 반납



#### KOCM 해양환경공단/수협

- 생수 판매 기록관리
- 수거한 폐생수병 보상



#### 재활용업체

- 폐생수병 전처리 및 재가공 후 재활용품 생산

### » (공급체계 개선) 안정적 재활용 물량 공급을 위한 재활용 공공집하장 운영

-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해 지사 중심 스마트집하장 설치와 저장 및 연중 균분 처리

현재

개별 현장 → 폐기물처리업자 (단순처분, 수출, 가공, 재활용)

개선

개별 현장 → 스마트집하장(해양환경공단) → 재활용업체

» (재활용 강화) 지속가능한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해양폐기물(폐생수병, 페로프 등)의 수거-집하-전처리-재활용 제품까지 제작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현장밀착형 제품 개발 및 판매)

» (재활용산업 육성) 재활용 공적 인증제 도입 및 브랜드 개발과 적용

- (인증제 도입) 재활용 체계에 대한 공적 인증제 도입으로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신뢰성 및 부가가치 제고

\* 국내 최초 해양폐기물 재활용 인증 제품 발굴

- (브랜드화)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공동브랜드(Re:BLUE)\* 개발·활용으로 해양폐기물 가치 제고

\* Recycle + Blue,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해 깨끗해진 바다를 연상

인증제



공동브랜드



추진 성과

- » 공공 차원의 해양폐기물 재활용 체계 혁신 공로 인정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수상(2023년 11월)



- » 어선 발생 폐플라스틱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우생순 캠페인' 운영으로 2년간(2022년~현재) 432척 참여 및 5.9톤 생수병 수거·재활용



- »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적 인증제 도입을 통해 재활용 제품 신뢰도 제고 및 기업의 ESG경영 차원에서 재활용 참여 활성화

\* 참여기업: LG화학, 효성화학, SK지오센트릭, SK에너지, 롯데케미칼 등



향후 계획

- » 어선 발생 폐플라스틱 해양투기 사전예방 캠페인 등 예방사업 확대 운영

- 연간 약 180만개(84톤) 이상의 어선 발생 폐플라스틱(페트병) 저감 효과 기대
- \* 전국 70개 수협, 2,800여척의 어선에서 페트병 재활용으로 고부가 가치 효과 상승



2,800여척의 어선

페트병 재활용

- » 공공 기반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공급체계 확대

- 민간의 재활용 시장 참여 확대 및 물질 재활용률 향상(2021년 10% → 2027년 20%)

#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 추진 배경

» 산업 간 융복합, 신산업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산업단지 규제의 유연화 요구 증대

\* 규제에 막힌 기업 투자애로 102건 중 약 10%가 산업단지 관련(대한상공회의소, 2023. 2. 21)



»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全)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할 것을 요구

## 추진 내용

» (체계 구축)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내부  
추진체계

• 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전사적인 상시 지원체계 운영

\* (총괄) 입지지원실(기업투자혁신팀) · (본사) 현장지원반(8개 주무부서) 및 현장자문단 · (지역) 현장기동반 편성(13개 지역본부, 10개 지사, 7개 사무소)

외부  
협력체계

•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규제해결 권한기관과 지역현장 매칭으로 대외협업 강화



» (현장소통)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현장소통 강화



하향식, 정부 주도

입지규제 간담회(9회),  
정부합동 현장소통회의(수시) 등



상향식, 기업 주도

산단별 기업주도형 간담회(13회),  
실태조사(수시),  
국민참여형 공모(3회) 등



## 추진 성과

### » (대불국가산업단지) 기업-지자체-정부 간 가교역할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지원



#### 애로사항

- 이격거리 및 입주업종 제한\*으로 대불산단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투자 애로
- \* 영암군 조례상 신·재생에너지 생산·판매설비 도로경계선 500m 내 입지 불가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태양광발전사업 외 신재생발전업 산업시설구역 입주 불가

#### 조치사항

- 입주기업과 지자체·지원기관·정부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규제사항 논의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도서(圖書) 작성 지원
- 영암군 조례 개정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2023. 6. 8.)을 통해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기준 규제사항 예외로 명시하여 신재생발전업 허용

#### 추진 성과

- 신규 투자 6,108억원 유치 (2.8만㎡, 100.32MW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조선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탈피, 산단 내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기반 마련

### »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적극행정을 통한 식품산업 입주기업 판로 확대 지원



#### 애로사항

-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공장 내에서 타 제조업체 의뢰생산물 판매 및 자사생산물 섭취 허용 건의(국무총리 현장간담회)
- \* 음식 섭취를 위해서는 휴게음식점 허용과 함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용도 변경이 필요하나, 공장 내에서 관련 법적근거 부재와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미허용

#### 조치사항

- 기업체 현장방문, 관계기관\* 회의 등 범부처·기관 규제개선방안 논의
- \* 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 푸드카페 기준 정의(면적, 용도, 업종 등) 및 제도 개선(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2023. 5. 22.)으로 식품공장 부대시설로 '푸드카페' 허용 근거 마련

#### 추진 성과

- 국내 유일 식품전문 산업단지의 브랜드화 조성 기반 마련
- 식품산업 관광테마 발굴 및 입주기업체의 판로개척 확대

### » (제도 개선) 산단 규제 전면 개편을 위한 30년만의 산업단지 규제개선안, '킬러규제 혁파 방안' 마련(2023. 8. 24. 발표)

#### 규제사항

#### 주요 킬러규제 개선방안



#### 첨단 신산업 입주·투자 제약

- 업종이 불명확한 신산업 → 전문가 신속 판단기구 마련, 5년 주기 산단 업종 재검토
- 기업의 투자 장벽 → 공장 자산유동화 도입, 연접기업 토지 임차 허용 등

#### 편의·복지시설 확충 곤란

- 편의시설 용지 확보 → 토지용도 전환(산업 → 지원) 및 복합용지 신설(산업 + 지원)
- 정주여건 개선 → 민간투자 촉진 관련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 향후 계획

### »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성과 확산

- 킬러규제 혁파 방안 이행 점검 및 조속한 법령 정비 완료 추진
- 지속적인 설명회, 좌담회, 공모전 등으로 공감대 형성 및 제도의 조기 안착 지원





# 공공기관 TALK

〈공공기관 TALK〉는 공공기관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기관의 역할을 들여보는 ‘CEO인터뷰’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말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혁신도시 박람회’에서는 2014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 및 협력 사업을 소개하고, 직원들의 미니 인터뷰를 통해 근무·생활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잡(JOB)담’에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소개하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담당자를 만나본다. 마지막으로 ‘나의 취업성공기’에서는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장애인 채용 부문’ 당선작 중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이야기가 독자분들에게 흥미롭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 CEO인터뷰

한국산업단지공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혁신도시 박람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잡(JOB)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나의 취업성공기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민연금공단







# 산업단지 대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학력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과학 석사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주요 경력

2023.6~현재 제12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2021~2023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2017~20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2015~2017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지원관  
2008~2015 지식경제부 전기소비자보호  
과장·소프트웨어산업과장·  
지식서비스과장·에너지절약  
정책과장  
1992. 12. 제28회 기술고시 합격  
(전체 수석)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1964년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단지로 지정된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한국수출산업공단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전국의 5개 권역별 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출범했으며 정부가 관리권자인 전국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와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1,283개 산업단지 중 82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는 34개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수는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의 50.6%(6만 983개사)에 이릅니다. 이들 관할 산업단지는 전국 산업단지 생산의 52.3%, 수출의 49.9%, 고용의 43.8%를 차지해, 제조업 기반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공단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미래형 산단 선도기관, 지역산업 혁신기관으로의 전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저탄소화로 산업단지의 새로운 활력을 높이고, 규제 혁신과 투자 촉진으로 기업주도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디지털 전환, 에너지 혁신, 저탄소화를 통해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친환경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동과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 창업, 문화, 복지, 편의, 주거 등 지원기능을 확충하는 구조고도화 사업, 산단 안전관리와 각종 기업지원 활동 및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공직에 계실 때 정보통신, R&D, 안전, 기술표준 분야를 두루 거치셨습니다. 산업단지라는 새로운 영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시게 되었는데 지난 6개월간 산업단지 현장을 다니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2024년이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가 60주년이 됩니다. 그간 산업단지를 통해 경제성장과 수출 강국의 면모를 세웠습니다. 6월 취임 후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창출해야 할 산업단지가 ‘경쟁력 저하’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된 요인이자 세부 문제점으로는 △과거 생산기능 중심의 산단 구성에 따른 지원기능(교통, 정주, 문화, 교육) 미흡, △노후 산단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도로 협소, 전력, 폐기물 처리 등), △집적



이 CEO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 · 저탄소 전환,  
청년이 찾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만드는 데  
최우선 노력 경주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업종 배치와 산학연 협업 여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화 기반 취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업 환경 변화에 제도가 뒷받침 못 하는 상황이나 기업과 민간투자 유인 환경이 미흡한 점 등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2022년 11월 디지털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과 올 8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정책을 마련한 것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세부적인 시행계획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단지가 정부 정책, 지역발전, 신산업, 규제혁신 등 여러 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역할과 향후 계획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요.**

산업단지의 대전환과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은 단숨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역량을 얻을 수 있고, 생산성, 에너지, 친환경, 안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최근 글로벌 데이터가 공유되는 지능화된 산업단지 구현을 위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2019~2027년)에서는 ‘기업 내’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2025~2029년)에서는 ‘기업 간’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조성하며, 3단계(2029~2032년)에서는 ‘산업단지 간’ 데이터 공유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기업 내’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1단계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중심의 제조 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 간’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조성하는 2단계에서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을 확대하여 디지털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관리 셸(Asset Administration Shell: AAS) 기반 입주기업의 제조장비, 도면, 제품, 설계 등 자산을 표준화된 형태로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간’ 데이터 공유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현하는 3단계에서는 초고속 네트워크로 산업단지를 연결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가상제조 기반 자율 생산공장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별 수요-공급 연계 협력이 용이해지고,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미래 산단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중장기 경영목표를 재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와 전략으로 조직을 이끌어가실 계획인지요.**

우리 공단은 ① 디지털·저탄소화로 지속가능한 산업 활동 확산, ② 규제혁신·투자 촉진으로 기업 주도 성장 강화, ③ 효율적 산업입지 공급으로 지역산업 성장 기여, ④ 경영혁신과 디지털경영으로 국민 신뢰 제고 등 4대 경영전략을 통해 산업단지 대전환의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산단(高탄소 배출·多에너지 소비)의 디지털·저탄소화를 통해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친환경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현재 15개에서 2027년까지 25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단은 산업단지에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형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접목하여 각종 위급·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기획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산단 입지규제를 찾아 해소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각종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소하여 민간투자 및 기업 성장 유발로 이어지는 시너지 극대화 방향으로 지원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입지 개발·공급 및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산업단지를 브랜드화하고,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산업 공간을 주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영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라는 혁신 노력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의 핵심 기능 점검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조직·인력을 정비하고, 부채비율 관리를 통한 방만경영 근절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전국 각 지역에 있어 한국산업단지공단도 현장 조직이 많은데요. 지역 조직이 많은 만큼, 임직원들과의 소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십으로 원팀 조직을 만드실 계획이신지요**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경영진과 부서장들이 솔선수범하는 ‘현장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산업단지 혁신 통해 지역혁신 선도 기관으로 새롭게 변모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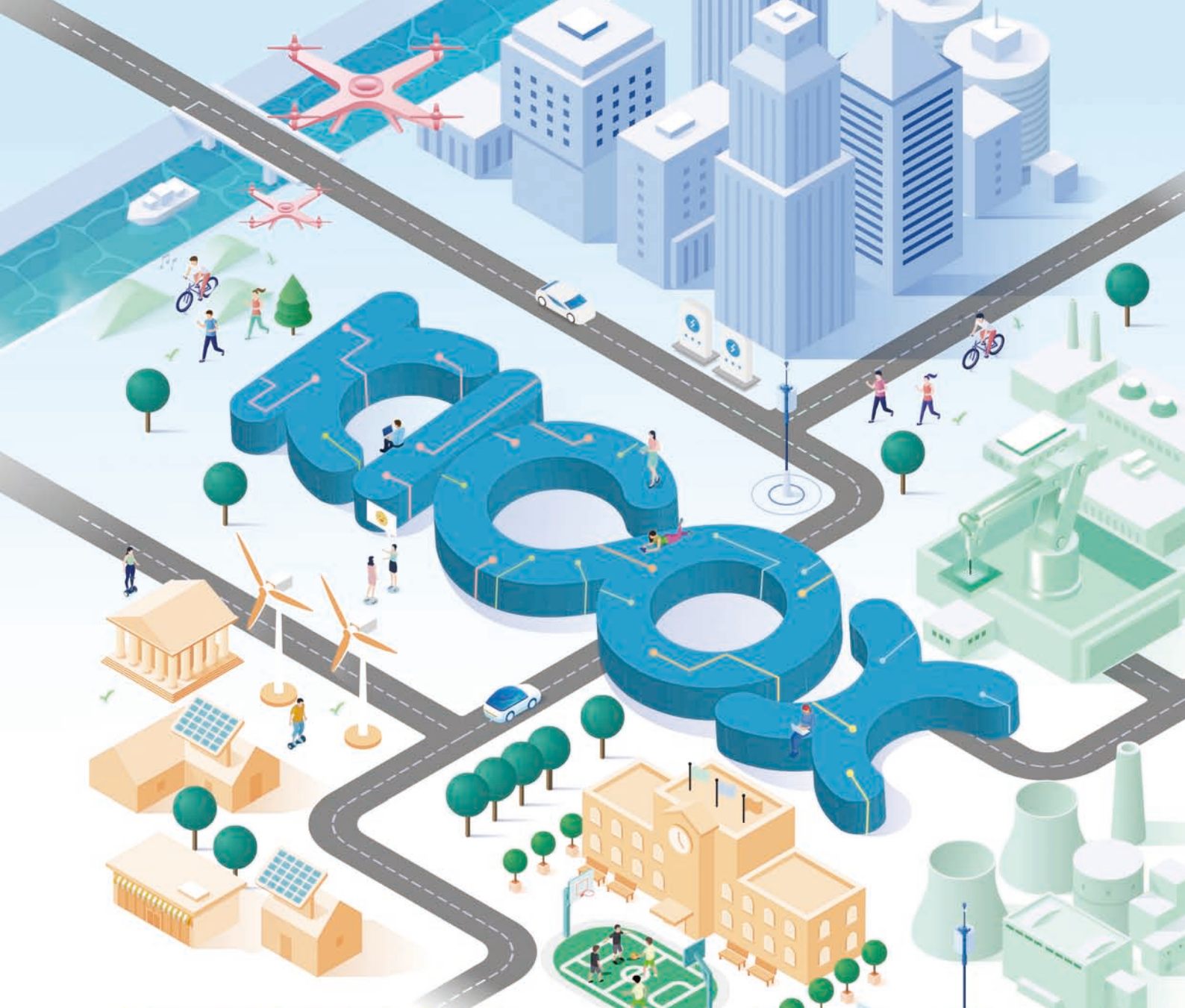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정착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취임부터 지금까지 늘 직원들에게 기업과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해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속하고 전문성과 청렴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은 물론, 직원들이 일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만드는 일 또한 CEO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경영진과 부서장들의 리더십이 CEO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청렴·리더십 교육 실무 강사로 나서 임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갑질금지, 동기부여, 소통강화’ 등의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경영진들이 현장에서 나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였습니다. 본사와 지역본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하였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조직 개편에서 본사의 사업본부와 지역본부간 업무를 수평적으로 연결하였고, 지방시대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의 역할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 2024년에 산업단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60주년을 맞습니다. 의미 있는 해인데 준비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요.

1964년 9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으로 계획입지 개발 및 조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법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옛 구로공단(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은 전쟁으로 피폐한 우리나라를 산업화로 이끈 산업단지로, 수출산업(가발, 섬유, 봉제 등 경공업) 육성의 시발점이자 한국 경제 고도 성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구로산업단지 첨단화 계획(1997년)’을 계기로 첨단 지식산업 중심의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로 화려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울산, 구미, 창원, 여수, 남동, 반월·시화 등 전국의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주역이었고, 그 중심에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땀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還甲)입니다. 60주년을 전환점으로 산업단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계(境界)에서 중심(中心)으로, 산업단지 60년 대전환의 시작’을 주제로 ① 대한민국 산업단지 60년의 의미 조명, ② 산단 구성원의 화합 도모, ③ 국민과 공감, ④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변화상을 대내외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계, 노동계 등 산업단지 관련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념식을 비롯해 유공자 포상, 문화체육행사(전시, 공연 등), 60년사 편찬, 산업입지 콘퍼런스, 대국민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산업단지의 혁신 국민경제의 희망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전문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거점인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                           |                       |
|----------------------|----------------|---------------------------|-----------------------|
| 1 산업단지<br>디지털·저탄소 전환 | 2 산업단지<br>환경개선 | 3 산업단지<br>안전 고도화          | 4 산업단지<br>입지지원 및 규제혁신 |
| 5 산업집적지<br>경쟁력 강화    | 6 기업성장<br>종합지원 | 7 신산업입지 개발 및<br>산업집적시설 공급 | 8 산업입지<br>정책 연구 및 분석  |



#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 치의학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용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원장



##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석사  
 서울대학교 치의학 학사

## 주요 경력

2023~현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2020~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자문위원  
 2019~현재 대한치주과학회 부회장  
 2016~2019 서울대학교 교무부처장  
 2013~201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  
 2000~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이용무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1924년 설립된 경성치과 의학교 부속병원을 모태로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04년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이끌며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중앙 치과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본원을 비롯해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수탁운영)을 통해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치과병원으로 거듭나고자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연구, 진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 부문에서는 구강내과, 영상치 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구강병리과, 치과마취과 등 10개의 진료과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구강암, 얼굴기형, 장애인 치과질환 등 중증 난치성 구강 질환을 심층적이고 통합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여러 진료과 간 협진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임플란트진료센터, 원스톱협진센터, 구강악안면기형진료실 등의 특수진료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개원한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받아 대한민국 장애인 구강건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실력의 교수진이 제공하는 임상교육과 일 평균 외래환자 1,200여 명에 이르는 세계적 규모의 임상케이스는 그 자체로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치의학 대학원생, 전공의 및 전문의에 대한 심화교육을 비롯해 국내외 학술대회나 글로벌 포럼, 해외 연수 등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치과치료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브라질, 네팔 등 해외 의료진의 연수를 통하여 국내 선진 치의학 공유는 물론 세계 치과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 부문에서는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 될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중심 치과병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치의생명과학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의료진의 지속적인 해외 파견과 교류를 통해 치의생명과학 분야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는 등 차세대 치의학의 핵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게재해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 치의학 발전과 국가 보건의료산업의 진흥과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병원 최초로 2021년 치의생명과학연구원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자원 사업 거점은행’으로 선정돼 국가보건의료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이 CEO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환자들이 편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최우선 치과병원



있습니다. 이밖에도,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와 치과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 개소를 통해 치과 재료 및 기기 개발 등 다각적인 연구로 치과계 첨단화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2023년 4월 제7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4월에 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받은 것들에 보답하고 봉사할 의무를 갖고, 병원 발전에 기여하고자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 저는 투명성,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경영원칙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1:1 임상교육 체계를 구축해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전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해 다가올 20년을 이끌어 갈 차세대 의료인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립을 추진 중인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치과의료기기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용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치의학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행적인 진료 문화 개선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중점 추진 사업으로 꼽는 ‘환자를 위한 진료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해 대학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예약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도입한 후 수납 제도와 진료비 자동결제 서비스(바로결제) 외에도 모든 진료과의 ‘당일 내원 당일 진료’ 체계를 도입하여 환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내외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선도해 국민의 구강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사회 소외계층의 든든한 구강건강 버팀목으로 기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국제사업 확대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의료 정책 지원 및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과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병원 교직원들에게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늘 강조합니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치과계 공공의료기관으로, 치과 의료 소외계층에 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를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검진, 발치, 충치 치료,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치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에서는 특수학교를 찾아가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 등으로 치과 진료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이동진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008년부터 우즈베키스탄, 페루 등 해외에서도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봉사단을 파견해 150명이 넘는 현지 장애아동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수술과 치과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페루 쿠스코에 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봉사단은 도시 빈민, 원주민 등 130여 명에게 전체틀니 보철치료, 충치 치료 등 치과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페루 UNSAAC 치과대학과 구강보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운영하며 양국 간 치의학 교류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내외를 오가며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국민 구강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치의학으로 글로벌 교류협력에 앞장서는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 건립, 환자 중심 서비스 체계 확립, 경영 효율화 정책 등 여러 산적과제가 있겠지만, 병원장님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점 추진 사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중점 추진 사안은 환자가 최우선이 되는 ‘환자 중심 서비스 체계 확립’입니다. 흔히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 하면 진료 전후에 장시간 대기 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과계를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비효율적인 관행들을 타파함으로써 병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일 내원 당일 진료’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병원까지 귀중한 시간을 내어 내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신속한 진료를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병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유관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당일 내원 당일 진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체계가 정착되면서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병원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체계적인 임상교육으로 세계 치의학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치과병원 ”



치의생명과학 분야  
핵심 연구를 통해 미래  
치의학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치과병원



이와 더불어 지난해 11월에 도입한 진료비 자동결제 서비스인 ‘바로결제’ 역시 ‘환자 중심 서비스 체계 확립’ 기초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결제’는 환자들이 병원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진료 후 별도 수납창구 방문 없이 다음날 진료비가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입니다. 내원객들이 진료비 수납을 위한 창구 방문 및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환자 편의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방사선 촬영이나 임상검사 등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할 때 ‘선 검사 후 수납’으로 변경하는 등 병원 이용 전반에 환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환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서, 병원의 고객인 환자들의 불편함을 줄이며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병원장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중점 추진 사안입니다.

#### 국민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직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년간 우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 구강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며 든든한 구강건강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우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직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그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난국과 대내외적인 상황의 변화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직원과 병원 경영진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직원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고, 각자가 우리 병원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충분히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 역시 병원장으로서 우리 교직원 여러분을 믿고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별도, 나이도, 출신도 다른 모두가 하나로 모여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모두 우리는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다문화가정, 남녀차별, 세대갈등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줘야 할때입니다.





## 충북 혁신도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스마트 혁신도시를 지향하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람들을 만나다 —

충북 혁신도시는 정보통신(CT)과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선진화를 통해 중부권 지역 성장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스마트 도시이다. 충북도는 충북 혁신도시를 K-City, 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도시로 육성하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이번 호는 2015년 충북 혁신도시로 기관을 이전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람들을 만나본다.

## 정보통신(ICT)과 태양광 에너지 기술로 특화된 친환경 녹색 치유도시

충북 혁신도시는 정보통신(ICT) 특화 도시로 크게 의료, 교통, 생활 등 3가지 분야에 정보통신(ICT) 혁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병원과 연계한 스마트 응급의료서비스를 통해 현장 출동—응급처치—이송—치료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관리한다. 구조대가 환자의 상태를 입력하면 이 정보가 바로 119상황실로 접수되고, 병원에서도 곧바로 응급치료를 위한 사전준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지도의 편의성과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교통 및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초소형 전기차 공유서비스와 순환형 자율주행 셔틀, 공공배달앱 서비스, 지역 통합 생활 플랫폼 등을 도입했다. 충북도는 이를 통해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공해와 교통 혼잡, 주차 등의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2018)에 따르면 충북 혁신도시는 전국 최초 태양광 특구로 지정된 도시로,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등 10개 연구기관과 관련 69개 기업이 모인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기업은 사업화 지원센터의 창업 컨설팅을 통해 태양광 사업 관련 아이디어의 시제품을 구현하고, 연구를 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초고층 태양광 설비 실증 연구센터와 도로형 태양광 실증 사이트를 통해서도 초고층에서의 설비 효율과 안전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충북도는 지역 대학과의 연계사업도 추진해 혁신도시가 더욱 태양광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총 11개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4개 기관이 이전했고, 인재개발과 교육 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3개 기관이 이전했다. 또한 충북의 지역적 특성과 공공서비스 육성을 고려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등 3개 기관도 함께 이전했다.



### Mini Interview

#### 멋스러운 사람들과 진천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다



이창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 팀장

####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정책기획팀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이창훈입니다. 정책기획팀은 원내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홍보도 담당하는 팀입니다. 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설립된 2009년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사물인터넷·인공지능 같은 첨단 ICT 기술 기획을 10년 동안 담당했습니다. 다양한 기술적·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 혁신도시 이전 후에 새로 찾으신 여가 활동이 있나요?

여기 진천에 내려온 때가 2015년인데 그때는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없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회사 헬스장에서 주로 운동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심심함을 느껴서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주변 도시에서 택견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지역 도시에서 택견을 전수하신 관장님을 만나서 택견을 배우고 운동이 끝나면 집에 가서 지역 주민들과 차도 얻어 마시고 하면서 지방 도시의 문화에 흠뻑 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장님은 무술 몸동작이 춤과 같이 유려하시고 풍류를 아는 멋스러우신 분입니다. 관장님을 통해 '무예(武藝)'라는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 혁신도시 직장생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획하는 일이 많아 상당히 많은 문서를 봐야 하고, 또 산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오후가 되면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좋은 풍경과 잔디밭이 딸린 운동장이 있어요. 오후에 나른해지면 잠깐 주변 풍경을 보면서 운동장을 걷습니다. 도시와 다르게 여기서는 간단한 산책만 해도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 받는 느낌이 들어요.

#### 혁신도시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시나요?

챗GPT와 같은 첨단 ICT신기술을 국가·산업계에 확산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역주민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알려지고 이곳 진천의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Mini Interview

## 아름다운 시골과 도시가 공존하는 충북 혁신도시

전수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전략팀 수석



###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수남 수석입니다.

민간기업에서 15년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진흥원에서 14년 정도 팀장, 사업기획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대표 사업은 A바우처, A+X 사업 등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주 후에는 주중에는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주말에 올라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혁신도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생활의 장단점은?

이곳은 아름다운 시골과 도시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푸르른 자연이 펼쳐집니다. 4월에는 맑은 공기와 햇살이 콧등을 간지럽히고, 만개한 벚꽃이 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핍니다. 진천의 명소인 농다리를 지나 오일장으로 가 보면, 이 곳만의 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응급병원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 지방 이전 전과 후의 근무 경험을 비교한다면?

이전 전에는 서울 상암동 DMC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종파 3사와 CJ ENM 같은 종합 콘텐츠 기업들이 있는 핫한 지역입니다. 서울에서는 퇴근 이후 저녁 모임을 자주 가졌다면, 진천으로 이전 후에는 개인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이킹, 헬스, 달리기 등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취미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혁신도시에서의 미래는?

“아직도 수많은 날을 진천에서 보내야 하는데...” 제가 사내 게시판에 가끔 게시하는 글입니다. 하이킹하면서 보는 신기한 장면, 아름다운 광경,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맛집 등을 사우분들과 공유하는 행복한 생활을 계속 즐기고 싶고, 이러한 재충전을 통해 업무에 더욱 집중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산업현장에서 환영할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 AI와 SW로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함께 열어갑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2009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근거해 설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산업 혁신 전문기관이다. 2015년 6월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며 현재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를 비롯한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호찌민, 인도 등 4개국 4곳의 해외 IT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새로운 국가 산업 경쟁력 발굴 등 어느 때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메타버스와 같은 ICT 산업 경쟁력이 중요해진 상황 속에서 NIPA는 정책 연구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ICT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지역과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는 등 IC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봉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첨단기술인 인공지능을 확산하는 기관

NIPA는 ICT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초거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일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K-클라우드를 확산해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내 초거대AI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 전략 사업화를 위한 '초거대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초거대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법률·의료·심리·학술·콘텐츠 5대 분야에 초거대AI의 생성 능력을 결합하여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인프라·데이터·인재 등 국내 AI산업의 강점을 더욱 확대하고, AI의 사회적 편향과 부정 사용은 없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영역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견인하고 국민의 혜택도 확대하고자 한다.

## ICT 신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융합·적용하는 기관

NIPA는 디지털 헬스, 메타버스 등 ICT·SW 신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 거점(대구·부산), AI집적단지(광주), SW융합클러스터(11개 지역) 등을 구축하여 지역 주도로 차별화된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의료데이터 플랫폼 활용 시 기반 의료서비스 등의 신서비스 발굴, 국민 체감형 메타버스 컬러 어플리케이션 발굴 등 ICT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ICT 전문기관

NIPA는 ICT 기관 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역주민, 학생, 교육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에게 ICT를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2021년부터는 ICT 분야에 재능 있는 충북지역 청소년(초등 학생)을 선발하여 디지털 사회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IT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다. 160명의 규모의 'IT 스카우트' 창단식을 시작으로, 매년 1기씩 단원을 선발하여 글로벌 ICT 인재 양성을 위한 ICT 기술 교육·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지역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목표로 ICT 신기술체험관 '디지털스쿨'을 개소하여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시니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코딩 로봇,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실습, 가상현실(VR) 체험, 드론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스쿨은 2022년 기준 총 82회, 1,116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등 지역 ICT 신기술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충청북도(혁신도시발전과)와 '지구를 부탁해! 디지털 사생대회'(2022. 9.)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존'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고, 충북혁신도시문화협의체\*와 함께 개최한 '메타버스로 함께하는 충북혁신도시 ICT 체험행



IT 스카우트 창단식(사진출처: 필자)



IT 스카우트 활동 모습(사진출처: 필자)

\* 충북혁신도시문화협의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충청북도 참여



로보마스터 주행 실습 교육(사진출처: 필자)



디지털 사생대회 시상식(사진출처: 필자)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한 개막식  
(사진출처: 필자)



충북 혁신도시 메타버스 공간  
(사진출처: 필자)

사(2022. 11.)는 ICT 신개념으로 등장한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2,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치러지기도 했다.

##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 1등 기관으로 발돋움

이와 함께 NIPA는 공정을 기반으로 한 공공분야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매년 기관 자체 '청렴윤리 주간'을 운영하고 릴레이 청렴 실천 서약식, 청렴 골든벨·청렴 문예전 등을 개최해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NIPA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최우수',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 'A등급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국민 신뢰를 받는 청렴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NIPA 청렴윤리 주간(사진출처: 저자)



2022년 NIPA 청렴슬로건 최우수작(사진출처: 저자)

### Mini Interview

## MZ선임의 엔조이 혁신도시 라이프



최미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반도체팀 선임

###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입사 3년 차로, 시반도체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 '진천동' 출신인 저는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진흥원에 입사하여 충북 혁신도시 라이프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첫 직장인 진흥원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하며 좌충우돌 사회초년생의 성장기를 찍고 있습니다.

### 혁신도시에서 생활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오렌지카라멜의 아이♡으로 전국노래자랑에 도전한 경험이죠! 입사 2주년 기념 이벤트로 입사 동기 2명과 한 달간 회사 탁구장에서 남몰래 땀 흘린 추억이 인상 깊습니다. 30:1이라는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이었지만, 당당하게 본선 진출에 성공해 공중파에서 회사를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저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아이돌이 되었고, 이제 충북 혁신도시에서 '진천카라멜'을 모르면 간첩이랍니다.

### 이런 상사와는 정말 일하기 좋다 또는 이런 상사와는 정말 일하기 힘들다!

업무 가이드를 명확히 주는 상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특히, 자연차일 때 확실하게 업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상사가 계시면 의욕이 끊게 됩니다. 샘솟는 의욕을 가지고 상사의 추가적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고, 이해한 것을 확인 받고자 피드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뚜렷한 상사는 꼭 만나고 싶은 상사입니다. 반면, 분명한 업무 가이드 없이 책임 회피만 하는 상사는 멀리하고 싶습니다.

### 향후 미래 계획은?

Just Do it & Enjoy! 경험을 망설이지 않고 그저 행하며, 경험의 과정을 진정으로 즐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기개발, 운동 등 하고 싶은 것에 과감히 도전하고 즐길 겁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 톡톡이 참여하며 회사 동료들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배우고 싶은 공부에 열중해 개인 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제에 답하십시오.

$$\begin{array}{r} 3.1 = \\ 8.15 = \\ 6.25 = \\ 4.19 = \\ + ) 5.18 = \\ \hline 26.87 \end{array}$$

수학은 만점, 역사는 빵점  
당신의 시험지입니까?

대한민국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역사인식부터 바로서야 합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채용정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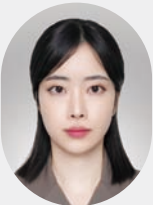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해 1979년 1월에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중소기업 종합 지원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 양성 및 창업·기술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외모 등 불필요한 차별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중진공은 직무 중심의 투명·공정·친절 채용을 통해 20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블라인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2년 연속 획득했습니다.



황가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재경영실 과장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중진공은 직무 적합인재 채용을 위해 채용 모집 분야를 직무에 맞춰 세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 분야별 직무기술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태도가 무엇인지 숙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필기 및 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 전형은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시험, 인성검사로 구성됩니다. 전공시험의 경우 채용공고를 통해 세부 시험범위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전형은 토론면접과 직무역량면접으로 구성되며, 평소 경제시사 이슈나 중진공 지원사업 관련 대외 환경 등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사업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기관 홈페이지, 관련 뉴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 직무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입 직원으로서 중진공과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직자  
인터뷰

## 중소기업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



조소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대리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업금융처 자금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조소형 대리입니다. 2020년 6월 입사하여 서울동남부지부에서 정책자금 융자 업무를 3년간 담당했고, 올해 7월에 본사 기업금융처로 발령받았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중진공은 정책적인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중소기업과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영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처는 정책자금 기획과 운용을 담당하며, 융자기획, 융자예산관리,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성과 창출 기업에 이자 환급과 대외기관과의 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초창기 스타트업에서 근무할 당시 서비스 개편을 앞두고 자

금조달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여러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셨고, 다행히 기술성을 인정받아 정책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기업이 커가는 과정을 보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과 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인 중진공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보람도 느끼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아침마다 경제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다양한 뉴스를 읽었던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도서관 가는 길에 세상 현안을 알 수 있어, 직접적으로 논술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본인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말해주세요.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합니다. 중진공의 고객인 중소기업을 응대하고 내부 직원들과 협업하는 일이 많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객 관점에서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하여 고객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중진공에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중진공은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경조사 지원, 동호회 등 사내 복지제도가 있으며, 전화화상 외국어, 독서통신, 사내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합니다.



중진공에 근무하며 업무에 보람도 느끼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복지제도를 이용할 때마다 직원의 성장을 응원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있거나 인상깊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입사 후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을 관할하는 서울동남부지부에서 정책자금 융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대표님들마다 고마워하셨고,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한 중소기업 대표님께 받았던 메일이 기억납니다. 정책자금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 보내신 메일이었는데, 자금 지원 후 기업의 성과, 앞으로의 해외 진출 계획과 함께 자금이 정말로 필요한 때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어 고맙다고 하셔서 보람도 느꼈고,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입사 전에는 막연히 사기업과 다르게 회사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사해 보니 젊은 직원들도 많고 선배님들과 편하게 의견 공유하며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도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담당 업무에 대한 제 의견을 자유롭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의 경험을 정리하여 자기소개서 문항에 맞게 활용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NCS와 전공 공부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본인의 취약점과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위주로 정리하여 단권화해야 합니다. 면접 준비 시에는 빈출 면접질문을 정리하여 면접 스터디원들과 답변 연습을 하며 피드백 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불합격 시에는 아쉽겠지만 다음 도전을 위해 마음 정리를 하고, 다시 본인의 취업준비 루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취업준비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힘들시겠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기필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짧지 않은 취업 준비기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언제쯤 원하는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10대 때는 수능 준비하던 고3 시절, 20대 때는 취업준비생 시절이 가장 힘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에 가장 많이 공부했고,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간절한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원하시는 회사, 중진공에서도 뵙기를 희망합니다!○





채용정보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3년 2월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중점 추진 업무는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및 데이터 인력 양성 확대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산업 전반의 데이터 유통·활용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데이터 산업을 혁신하고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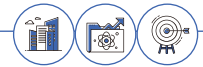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시행합니다. 정규직 신입 사원을 기준으로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전형, 3차 면접 전형 단계로 구분하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채용 전 과정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취업 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국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인사총무팀 팀장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입사지원서는 지원 분야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경력 사항들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진솔하고 빠짐없이 작성하되,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단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후, 관련 경험이나 경력 등을 중심으로 본인이 기관에 필요한 인재임을 충실히 강조하며 작성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필기 및 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 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며,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시간 분배 연습이 중요합니다. 면접 전형은 직무역량, 업무 태도,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여러 가지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도 준비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 기관의 특성과 이슈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기관마다 매우 다양한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분들은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유념하여 지원 기관의 관련 분야 영역, 수행 사업 등 이해도를 높이고 본인의 전공, 역량 등과 연계하여 준비해 나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역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비전 및 전략 추진체계**

VISION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VALUE	탁월성	도전·혁신	상생·협력
전략과제 및 중점 추진사항	데이터 활용·보호 기반 조성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 	데이터 산업 활성화 
	1. 기업의 데이터 활용 디지털 전환 촉진 2. 정보 주체의 데이터 주권 확대 3. 데이터 활용·보호 인프라 강화	1. 데이터 유통·거래 제도 도입·안착 2. 데이터 유통·거래 민간 역량 강화	1.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기업 육성 2. 산업 수요에 맞춘 데이터 인력 양성



현직자  
인터뷰

## 밝고, 행복한 미래만 남았습니다



주기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사업운영팀 주임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사업운영팀에서 근무하는 주기쁨 주임입니다. 2022년 입사 후 2년째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운영지원기관 관리 및 수요기업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를 지원받는 수요기업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으로 나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잘 활용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연간 일정에 맞춰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평소 데이터산업 분야와 산업의 발전가능성 등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알게 된 후, 전 직장의 업무 연관성을 바탕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지원 분야와 관련한 근무 경험입니다. 다른 부처의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방법을 사업에 반영하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전문가, 실무자 등 여러 방향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 질문 답변 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본인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말해주세요.

모든 공공기관은 문서 작성능력과 업무 이해능력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며,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 역시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데이터바우처의 경우, 1년에 2천여 개 이상의 기업이 지원받는데, 그만큼 다양한 직종과 분야가 존재합니다.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만한 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또한 꼭 필요합니다.

### 현재 담당 업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여러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한다는 뿌듯함입니다. 데이터라는 생소한 분야를 지원한다는 자부심 또한 좋은 점입니다. 어려운 점은 수요와 공급기업의 전문성과 적극성에 따라 품질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을 때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하는 데이터 활용본부의 선배님들과 함께 좀 더 좋



은 지원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피부로 느끼는 일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원받은 기업들이 매출 증진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어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실 때 정말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무인자판기에 있는 재고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판기의 판매 및 회전율을 높여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담당자로서 뿌듯하고, 필요한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사업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입사 전에는 쉽게만 보이고, 단순하게 흘러가는 작업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입사 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지원한다'로 표현되는 사업이지만,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의 경우 공모—평가—매칭—이행 점검—민간 부담금 점검—성과 평가—결과 평가라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1년 내내 동료분들과 함께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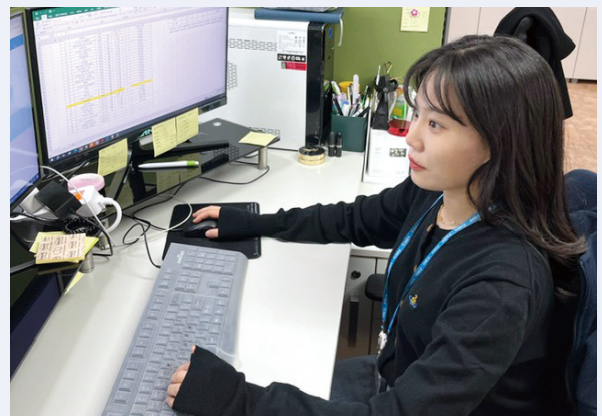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주세요.**

공공기관 업무는 문서 작성과 한글, 엑셀 등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역량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할 때 많은 경쟁과 시험이 버겁지만,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시기이지만, 계속해서 준비한 것들을 자신감 있게 보여주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취업 준비생 시절 기다림과 거절의 연속에서 자존감과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쉽게 지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입사를 준비하시면서 이러한 힘든 과정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곳은 분명 어딘가에 있으니 정확한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꼭 좋은 결과를 이루실 것입니다. 특히, 나이와 성별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너무 지치고 어려운 시간을 버티시는 분들을 응원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낸 만큼 결과는 더 크고 행복하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은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장애인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 출발선상이 다르다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

### 이야기와 현실의 차이는 주인공과 독자다

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요즘은 전자책, 인터넷,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난 종이로 된 소설책을 좋아했다. 그중에서 무협 소설의 불우한 소년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한다.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장보도 보검, 가짜 장보도에 속아 비동에 모인 고수들이 함정에 빠져 죽고, 그 정보를 흘린 '흑막'은 조용히 뒤에서 비웃는 흔한 전개. 유복했던 집안은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져 막대한 빚을 지고, 집안에 빨간딱지가 붙고,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살며, 어머니는 매일 식당 일과 부업을 해야만 했고, 아버지의 폭력이 끊임없는 집안. 혹은 어린 시절 이 흔한 부모님과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 흔한 악조건은 다 갖춘 소년.

그렇다. 적어도 작가로서 고민이 부족한 듯 보이는 이야기가 바로 내 인생이다.

일곱 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그리고 막대한, 아니, 일을 하다 보면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빚을 진 어머니는 나와 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매일 일을 나가셨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시고, 부동산 전단을 돌리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또 찾으시고... 나도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리고 사실, 나는 장애를 갖고 있어 결국 열 살 때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발이 불편해서였다. 먼저 말하자면, 지금 왼발은 발가락 두 개가 없고 발바닥 부분은 휘어져서 U자 형태로 생겼다. 의사 선생님은 내 발을 보며 처음 보는 병이라고 했다. 왼발이 심각할 정도로 빨리 커지고 있어서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으면 더욱더 비대해질 거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발가락 두 개를 절단했다. 성장판이 닫히면 아마 발도 성장을 멈출 거라고 했다.

신발은 꼭 두 켤레씩 사야만 했다. 양발의 크기가 지나치게 다르기 때문이었다. 걸을 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쉽게 발목을 삐거나 넘어질 수 있었다. 늘 긴장했다. 잘 뛰지도 못했다.

점점 어두운 성격으로 변했다. 친구도 없었다. 늘 말없이 책을 읽으며 지냈다. 장애를 받아들이기 싫었다. 그래서 더 소설책에만 몰두하며 지냈나 싶다.

### 동갑내기들과 비슷한 일상을 살고 싶을 뿐이었는데

나는 용돈을 받은 경험이 없다. 어머니께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전단을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웨딩홀 뷔페에서 음식 접시들을 치웠다.



신동현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사원

2012년 최저시급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한다. 4,320원이었다. 8시간을 딱 채워 일하면 일당으로 3만 4천 원을 넘게 받아야 했다. 그런데 내가 어리다는 이유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천원 단위를 빼 버리고 3만원만 주곤 했다. 그래도 나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어리고 몸이 불편한 내게 일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때 햄버거 세트가 3천원이었으니, 열 다섯 살이었던 내게 3만원은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아르바이트를 평일에도 하기 시작했다. 다만 알바 지원서를 낼 때 발이 불편한 사실을 숨겼다. 장애인인 걸 알면 뽑아 주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시급을 적게 줄 것 같아서였다. 나중에라도 걸릴까 봐 조마조마했다. 학교가 끝난 뒤 야자논커피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주유소에서 기름 총을 잡았다. 주말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매일매일 일을 하면 돈이 꽤 모일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다. 매달 직접 내는 휴대폰 요금, 매일 사 먹을 수박에 없는 저녁 끼니, 급식비와 공공금 등 도대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 달 벌어서 겨우 한 달 버티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자동차 부품을 약품 처리하는 공장에 다녔다. 새벽에는 택배 상차도 뛰었다. 아픈 발로도 몸을 끝없이 혹사했고, 누적된 피로에 쓰러질 것 같은 나날들이었다. 정말 열심히 벌고 정말 열심히 갚았다.

나에게 '일상'이란 집에 가면 함께 저녁을 먹을 가족이 있는 거였다. 주말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가끔 나들이를 가는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평범함을 꿈꾸었지만 늘 할 수 없었다. 내 또래들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고

용돈을 받아 놀러 다닌다는데, 난 왜 안 될까? 그런 일상을 누리는 날이 오긴 할까?

**장애를 받아들이다**

스물네 살, 여름이었다. 공기업에 재직하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친구가 조언을 하나 해 주었다.

“장애인 전형으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해 보는 건 어때?”

후임으로 들어온 한 직원이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왔다며 내게 취업준비를 권유했다. 이 말이 내게 엄청난 길을 열어줄 줄은 몰랐다.

‘만약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선 장애를 받아들여야 했다.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분명 기회일 수 있었다. 그동안 숨기며 살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해야만 했다. 그날부터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을 알아봤다. 비장애인보다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은 취업 문턱. 대한민국은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나라였다. 장애를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됐다.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은행권까지 수백 곳의 장애인 전형을 알아봤다. 토익 점수만 필요한 곳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서류와 면접만 통과하면 합격이라고 했다. 장애도 상관없고 학력도 상관없다니. 조금만 준비하면 나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겼다.

첫 토익 시험에서는 300점 정도가 나왔다. 부끄러운 점수였다. 몇 달 동안 토익을 공부하면서 틈틈이 새로운 공채를 확인했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기업이 ‘한



국토정보공사'였다(이전엔 '대한지적공사'라고 불린 기업이지만, 고등학교 전공이 토목과였기에 자주 들어본 곳이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무기계약직 장애인 채용 맞춤형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하자마자 반짝, 하고 불이 켜지는 기분이었다. 이곳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다른 걸 다 그만두고 이곳에만 몰두하며 준비해 보기로 했다.

서류는 여타 공기업들과 다를 바 없었다. 면접은 괜찮을지 내심 걱정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이나 편견 등 걱정했던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

합격 후 맞춤형 훈련 과정은 전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뤄졌다. 급히 방을 구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맞춤형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생 동기들은 연령대가 다양했다. 40대, 50대 형님들도 계셨기에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했다.

대화를 나눠 보니 모두 의견이 비슷했다. 다들 장애인 전형으로 공채를 알아봤고,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였다. 다들 꼭 합격하고 싶어 했다.

맞춤형 훈련 과정에서는 매일 토목과 교수님께서 대면으로 지적학, 「지적법」 등을 강의해 주셨다. 오후 5시에 강의를 끝나면 동기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로를 응원해 주는 특별한 동기들이 생긴 기분이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일생일대의 실수라 생각하면서 만점을 목표로 밤낮없이 공부했다. 그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꿈에도 상상 못 했는데, 장애인인 내가 어엿한 공기업 직원이 되었다니...

### 나만의 책상이 생기자

2022년 2월 21일,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로 발령받았다. 내심 걱정했지만, 장애인이라는 편견 없이 첫 출근 날부터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다. 업무 관련 내용들과 드론비행, GNSS 측량 등 많은 것들을 알려 주셨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열려 있다면서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셨다.

이런 멋진 사무실에 내 책상이 생기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 자리가 생기고 내 직함까지 받고 나니 공직자로서 청렴과 의무감도 샘솟았다. 앞으로 갈 길이 먼 신입사원이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기회를 준 이 나라에 헌신하도록 책임감과 애국심을 갖고 일하고 싶다. 또한 이제는 조금 여가 생활도 하면서 지내고 싶다. 예전과 달리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었으니까. 고생하신 어머니께도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싶다.

난 소설을 좋아했다. 뽀얀 클리셰가 가득했던 소설 속, 적어도 작가로서 고민이 부족한 이야기들이 내 인생이었다. 소설 속 인물들이 마지막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고,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기도 했다. 악착같이 버티며 지냈던 나날들이 싫었고 장애 또한 받아들이기 싫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나'였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며,

나는 장애인이다.

이제는 내 인생이 소설보다 더 좋아졌다.○



\*이 글은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장애인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 0.005% 확률의 특별한 사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일은 마주한 꿈과 가까워질 수 없는 헛된 바람입니다. 중학교 시절, 그저 입으로만 내뱉던 저의 꿈은 검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에 그려보기만 했던 그림은 어느새 지워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온 지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는 생각에 무작정 달려간 곳은 특성화고등학교였고, 다행히 좋은 기회를 통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 1막,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한 대작전!

또래 친구들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때, 저는 사회에 뛰어들어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스무 살 시작부터 제 인생은 평범하기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입사 1년 6개월 후, 골육종을 진단받으며 더욱 평범할 수 없는 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암으로 2017년 기준,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10만 명 중 5명이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다리에 생긴 종양을 없애기 위해 뼈를 자르고 인공 기물로 대체하는 수술과 여섯 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종결 후, 다리에서 시작된

종양이 폐로 전이되는 특별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0.005%의 확률로 선택받은 지체장애인이 되었고, 일과가 걷고 뛰는 게 전부였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2막을 열기 위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며 컴퓨터 및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점자책 제작을 위한 문서 작성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사무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에 사무 직무를 1순위로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좌우명 아래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입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 2막, 6개월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다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에 모두가 '한컴토(한국사능력검정, 컴퓨터활용능력, TOEIC의 줄임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기에 앞서 어학 점수의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짧은 기간 내에 승부를 보고 싶었습



유선영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  
가입지원부 주임



니다. 다행히 불편한 건 저의 다리일 뿐,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거나 부지런히 손을 사용하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 방문하기였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채용공고를 확인했고, 사무 직무를 채용하는 모든 기관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필기시험을 대비하여 손을 부지런히 활용했습니다. 장애인 채용은 대부분 학력 무관으로 진행되어 NCS뿐만 아니라 전공 시험까지 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학력이 고졸이었던 저는 경영, 경제, 행정 등 전공시험에 등장하는 단어들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론 내용을 적고, 외우고,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와 풀이 방법을 적고, 다시 외우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필사였지만 전공책, 문제집, 필기 노트를 쌓아 보니 어느덧 제 허리만큼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비하여 저의 경험을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등 NCS 키워드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또한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반복해 재생하며 발음 및 자세 교정, 목소리 높낮이, 속도 등을 스스로 점검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응시한 NCS 시험에서 받은 점수는 46점이었고, 면접에서는 6명 중 5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 문구는 그저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자극체에 불과해, 멈추지 않고 준비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와 면접 상황을 되짚어 보며 부족한 점을 찾아냈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숫자를 매겨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험과 면접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리한 내용을 지속해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9일, 국민연금공단에 최종 합격하며 6개월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 3막, '평범'하고 싶습니다

지체장애인이 된 후, '사회는 내가 생각한 만큼 친절하지 않다'를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건넌던 횡단보도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깜박이는 초록 불은 무심하게도 저를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빨간 불에 액셀을 밟으려는 운전자가 재촉하듯 경적을 울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휠체어나 보조기구로 이동하는데 장애물 투성이입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일어섰고, 보조기구를 포기하고 주변 사물을 잡고 걸어 다니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리 수술을 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전 저에게 "휠체어를 타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장애인이야?"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평범'의 기준은 사회에서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비장애인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건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일하게 저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불러 주던 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다른 시선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blind' 단어의 정의처럼 두 눈을 감고 평가합니다.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 간절함을 알아봐 주고 필기시험

을 위해 흘린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는 자신감과 당찬 포부를 담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제 신체적 결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긍정적인 태도로 이겨보겠다며 '0.005% 확률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정신 승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의 채용을 준비하면서 신체적 결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저는 더 이상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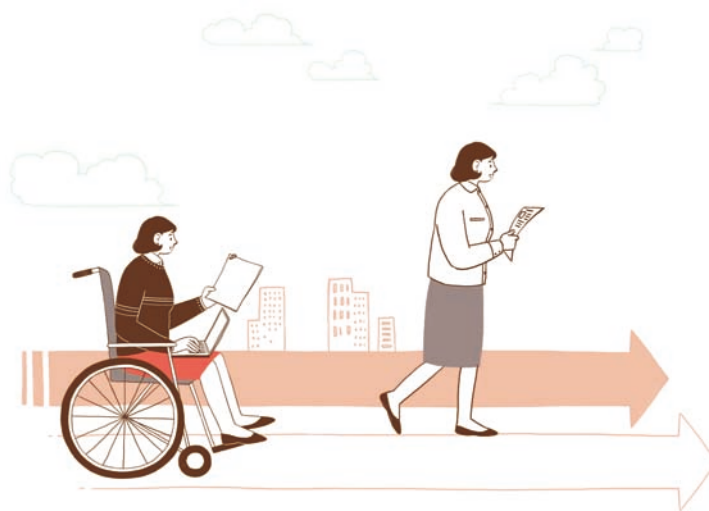
**이 글을 읽고 있을 누군가에게**

가끔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심장 터질 듯이 뛰 어다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인지하면 가슴 한편이 저려 옵니다. 소설 『달려구트 꿈 백화점』의 등장인물인 키크 슬럼버는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생명은 제한된 자유를 누

린다고 말합니다. 이에 자신을 가둬 두는 것이 공간 이든, 시간이든, 저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든...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는 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동안 제가 지 내온 시간을 말해 주는 조연인 듯합니다.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지친 친구들은 “이게 내 한계 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왔습니다. 설령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 벽을 허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진정으로 발휘할 때, 누구 보다 맛있는 모습으로 꿈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계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 그 벽을 부수고 일어나 자유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의 공공기관 입사 수 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뜻지 말고 반송하세요!

정체불명 국제우편물

올해 7월,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대량 발견되며 수 건의 **테러 의심신고**가 발생하여 우편물을 수거, 검사하였으나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아** 우체국에 보관중이던 국제우편물의 배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우편물을 받은 경우



테러 등이 의심되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테러혐의점이 없는 국제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같은 반송**을  
테러 등이 **의심되는 우편물은 119에 신고**바랍니다

# 행복하고 안전하게 겨울나기



## 겨울철 전기난로 안전수칙



사용 전,  
전선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



자리를 오래 비울 땐  
반드시 전원 off



종이 등 불이  
붙기 쉬운 물질  
가까이 두지 않기



힘내, 지구야  
WITH EARTH WITH US!

서울특별시 2023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ASSITEJ  
Korea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20th

어린이동요 100주년

국내 대표 어린이청소년 예술공연 축제

# 2024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2024.1. 3. (수) - 1. 14. (일)

장 소 종로 아이들극장, 대학로극장 퀴드, CJ아지트 대학로 외 대학로 일대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NAVER 예약 yes24

共存  
공존

서로도와서 함께 존재함

Coexistence

The 20th ASSITEJ KOREA Winter Festival, Seoul 2024